

어머니가 주는 선물 ‘讀書’

책 읽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는 “지금까지 세계 전체는 책의 지배를 받아왔다. 아무리 유익한 책이라도 그 반은 독자(讀者)가 만드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독서의 중요성을 설파한 말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의 교육에 참으로 많은 관심과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좋은 교육의 지름길로 ‘독서’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책을 읽히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읽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가 책 읽기의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특히 어머니의 책 읽는 모습은 아이들이 올바른 독서 습관을 갖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이와 함께 책을 읽으면 자녀의 생각과 재능을 미리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행복하고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는 재산을 많이 물려주기보다 어릴 때부터 좋은 독서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남일보는 연중캠페인 ‘책을 읽읍시다.’라는 주제로 생활 속 책읽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일곱 번째 맞이한 ‘책사랑 주부수필공모전’이 어머니들의 독서운동을 진작시켜 자녀들의 독서 습관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글을 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글을 잘 쓰는 일은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글을 써도 항상 부족함을 떨쳐버릴 수 없고, 글쓰기는 언제나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글을 잘 못 쓴다고 생각하고 쉽게 포기 할 일은 아닙니다. 주부, 어머님들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Story)가 좋은 글(Telling)의 소재가 될 것입니다.

영남일보와 달서구청이 함께 마련한 ‘책사랑 전국주부수필공모전’은 주부들에게 독서운동에 참여 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정에서 책 읽는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만들어가자는 취지입니다.

이번 공모전에도 다양한 계층의 주부들이 소중한 글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회를 거듭하면서 공모전에 대한 열기와 응모작품들의 수준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공모전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 수상의 영광을 안으신 분들께는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책사랑 전국주부수필공모전에 전국 주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2월

영남일보 사장 손인락

독서를 통해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 달서를 꿈꾸며...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게이츠의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 도서관이었다. 하버드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이 독서하는 습관이다.’라는 말은 무엇보다도 도서관과 독서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말입니다.

평소 도서관과 독서의 중요성을 알고 이를 몸소 실천하여 주신 제7회 「달서 책사랑 전국 주부수필 공모전」참여자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분께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대 사회에서의 주부는 가정·자녀교육·사회참여 등 모든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그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독서에 있어서도 주부는 책 읽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녀 스스로 독서 습관을 체득하게 하고 나아가 가정 내 독서 분위기가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달서구는 가정 내 최일선에 계신 주부들에게 독서운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독서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자 매년 주부수필 공모전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전국적으로 고르게 공모전에 참여하여「달서 책사랑 전국 주부수필 공모전」이 전국적인 관심 속에 꾸준히 자리매김하고 있고, 참가작품의 기량 또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좋은 책을 읽는 것은 수많은 고상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다.’고 한 독일 문학가 괴테의 말처럼 주부수필 공모전 수상작 모음집을 통해 한분 한분의 책을 매개로 한 일상과 자아실현, 도서관 봉사 활동, 소통과 자녀교육 성공기 등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수상자의 자긍심 고취뿐만 아니라 독자들의 독서 활동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독서 분위기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달서구에서는 책을 통해 꿈과 희망을 키우고, 밝은 미래로 나아 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하고 유익한 독서문화 사업을 추진하고, 무엇보다 지역 내 도서관이 책을 통해 좋은 인연을 맺고 지역 주민 누구나 나눔·소통·공감할 수 있는 장이 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부, 직장인, 아동들의 독서와 자발적 글쓰기 등 독서 활동 제반마련에 힘써 책을 통해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 달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공모에 참여하여 주신 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더 좋은 작품으로 많이 응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공모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영남일보사와 심사위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에 책과 함께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2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차 례

대상

박 희	이미 위대했던 유산	10
-----	------------------	----

금상

박남숙	내일을 위한 시간	16
이현희	나의 가장 幸福한 시간	22

은상

민경희	독서는 힘이다! 함께 읽기는 가족 사랑이다!	28
소정혜	좋은 당신을 위해 올린다.	36
윤승선	유 후	44

동상

문은주	열쇠 창고	49
박성희	평생친구	55
엄수인	내 안에 스며드는 것을 읽다.	61
이경화	책 밥상을 차리다.	66
황채민	말하는 책두꺼비	73

가작

강성화	쉽표 하나!	78
권미옥	책은 우리가족 수호천사	84
김양희	독서와 아날로그식 효도	88
도혜주	셀프치유	95
박복자	우리 집, 작은 도서관	100
박선미	용기에 노크하기	106
박영숙	책과의 동행	111
양수영	나의 친구가 되어준 도마동 새마을금고 자원봉사자들	117
오신혜	당신을 위한 등대	122
이명자	다시 찾은 독서의 행복	127
정은아	나는 그곳으로 간다.	133
최혜련	책의 첫 장을 두드린 행복	139
심사평	드높은 응모열기와 높아져가는 작품수준	146
관련기사		150

주부들의 아름다운 노래

책사랑이야기

제7회 달서 책사랑 전국주부수필공모전 수상작 모음집



|대상

이미 위대했던 유산

박 희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창천동)

누군가의 흐느낌 소리에 눈을 떴을 때 엄마가 울고 있었다. 항상 지나치게 낙천적이고 긍정적이던 엄마의 눈에 그렇그렇 맺혀있는 눈물을 본 나는 뭔가 잘못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때 내 나이 겨우 열두 살이었다. 혹시라도 그 밤에 빗쟁이들이 급습할까봐 엄마는 잠이 덜 깬 동생을 끌어안고 내 손을 꼭 쥐 채, 소위 ‘야반도주’라는 것을 했다.

그리고 우린 부산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로 왔다. 새벽이 거의 다 되어서 도착한 허름한 집 앞에는 낫선 트럭 한 대가 덩그러니 서있었고, 그 옆엔 수염이 덩수룩하게 자란 아버지가 담배를 물고 서있었다. 엄마는 아버지를 본체만체 단칸방으로 들어가 그대로 뺏어버렸고, 아버지 역시 우리를 본체만체 단칸방에 딸린 다락에다 트럭에

신고 온 수천 권의 책들을 옮겨놓았다.

아버지는 원래 고등학교 국어교사였다. 하지만 글쟁이로 살고 싶어서 선생님을 그만두고, 몇 개의 문학상 공모에 지원도 하고 여기 저기 문단을 기웃거리다가 결혼과 동시에, 뜻을 접고 공무원이 되었다. 물론 그냥 공무원이길 거부했다. 관내 환경 조성을 한다는 명목으로 출판사들로부터 책을 후원받고, 부산에서 처음으로 이동도서관을 만들었다. 먹고 살기도 힘든 70년대 후반에 아버지의 그런 열정은 다행히 인정을 받아서 표창을 받기도 했다. 태생이 책을 좋아하고 항상 책을 가까이해야 직성이 풀리며 심지어 책을 베고 자야 잠도 잘 온다는 아버지는 공무원도 그만두고 아예 출판사를 차렸다. 아버지는 자신이 원하는 책을 맘껏 만들 수 있다는 희망에 벅찼지만, 결론은 부도와 야반도주로 끝나고 말았다.

문제는 다락방의 그 책들이었다. 정말 처자식을 생각하는 아버지라면, 몸도 제대로 펴지 못하는 단칸방에서 처자식이 새우잠을 자지 않도록, 자식들이 배고파 울지 않도록, 반드시 그 책들을 돈과 쌀로 바꾸는 게 맞는 일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처자식의 안위나 일용할 양식 따위에는 관심 없이, 다락방에 수천 권이 넘는 책을 고스란히 옮겨놓는 것에 남은 힘을 다 소진했다.

나는 매일 다락이 무너지는 악몽에 시달렸고, 때론 아침에 쌀이 없어서, 라면 두 개를 일부러 툭툭 퍼지게 끓여서 네 식구가 나눠먹는

악몽 같은 현실을 감당해야 했다.

아버지는 매일 다락방에 올라가서 책의 먼지를 닦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칠 뿐이었다. 결국 지나치게 낙천적인 엄마가 입에 풀칠이라도 할 요량으로, 보험 설계사 일을 하러 다니기 시작했다. 가끔씩 우리의 딱한 처지를 듣고 쌀이라도 사가지고 오는 친척들은 고풍이로 얼룩덜룩한 단칸방을 마뜩찮게 둘러보다가, 가당치도 않게 다락방에 잔뜩 쌓여있는 책들을 보며 다 망한 주제에..... 혀를 차며 돌아들 갔다. 하지만 아버지만은 다 망한 주제를 잊고 홀로 다락방을 지켰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나는 중학교 연합고사를 마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전, 겨울 방학을 맞이했다. 마침 친척집에 초상이 나서 부모님이 며칠 집을 비운 사이, 드디어 버르고 별렀던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악의 무리를 쳐부수기라도 할 것처럼 주먹을 꼭 쥐고는, 다락방문을 힘껏 열어젖혔다. 숨이 턱 막히고, 책 먼지들이 뿌연게 피어올랐다. 도대체 저 책들이 무엇이기에, 아버지는 저 책들을 목숨을 걸고 사수했을까? 나는 그 해답을 꼭 찾고야 말겠다는 생각으로, 빼걱거리는 다락 한 귀퉁이에 앉아, 다 씹어 삼킬 듯 책들을 읽기 시작했다.

그때 읽었던 마르케스의 ‘백 년 동안의 고독’은 충격적이었고, ‘참

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알 듯 말 듯, 내 생각의 추를 무겁게 끌어 올려주었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했고, 동서양의 고전은 어렵지만 깊이가 있어 좋았으며, 현진건의 ‘운수좋은 날’은 아픈 감동을 주었다. 염상섭의 ‘삼대’는 시대의 비극을 느끼게 해주었고, 윤동주의 저항시는 나를 울렸으며,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남겼던 김구의 ‘백범일지’는 처음으로 내가 누구인지, 조국의 의미는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었다. 혜경궁 홍씨의 ‘한중록’을 읽으면서 또 ‘조선왕조실록’을 탐독하면서, 어려운 한자를 하나하나 옥편에서 찾아가는 그 과정은 기쁨이었으며,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는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사랑을, ‘어린왕자’는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는 이유를 잊지 않게 해 주었다.

때론 내 수준보다 어려워져 여러 번 읽어야 했고, 때로는 지나치게 감정을 쏟아내서 심장이 고장 난 것 같았지만, 그 겨울을 다 보내고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나는 마치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달은 것처럼 벅찼고, 내 영혼의 우물이 그득하게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나는 서울로 대학을 갔고, 다시 직장 생활을 했고, 결혼을 하게 되었다. 우리 집도 예전보다는 생활이 나아져, 이제 그 추억의 다락방도 단칸방도 옛말이 되었지만, 여전히 새로 이사 간 집의 거실엔 다락방의 책들이 켜켜이 쌓여있었다.

후덥지근한 바람이 불어오던 9월의 어느 날, 결혼을 며칠 앞두고

친정집에 잠시 내려갔을 때였다. 나는 밤늦도록 오시지 않는 아버지를 기다리기 위해 대문가에 나가 있었다. 문득 아버지를 기다리는 그 몇 분 동안 오래전 그 일들을, 그 다락방을 떠올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골목 끝에서 아버지의 18번 노래 소리가 들렸다.

언제 우리가 만났던가... 언제 우리가 헤어졌던가... 만남도 헤어짐도 아픔이었지... 가는 길 돌아보면... 어디서 드셨는지 얼큰하게 약주 한잔 걸치신 아버지가 터벅터벅 걸어오시더니, 덥석 내 손을 잡으셨다. 참으로 오랜만에 잡아보는 아버지의 손은 생각보다 따뜻했다. 그리고 내 눈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시더니 문득 물으셨다.

“니..... 거실에 저 책들은 우짤킨데? 안 갖고 갈끼가?”

네? 무슨 소리가 하고 다시 아버지를 보았을 때, 겸연쩍은 듯 성큼 대문 안으로 들어가 버리셨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아버지가 그토록 그 책들을 지키고자 하신 이유를.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었던 그 진심을. 아무것도 남겨주지 못하는 아버지가, 책을 좋아하는 딸에게 굳이 주고 싶었던 유산 같은 그 책들의 의미를. 눈물이 핑 돌았다.

그 아버지도 5년 전 지병으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책들을 내 집으로 옮겨왔다. 새로 책장을 만들고, 책들을 장르별로 분류하여 칸칸이 꽂아 놓으며, 나는 오래전 그 책들을 읽으며 귀퉁이마다 써두었던 짧은 감상을 훑어보는 재미에 푹 빠졌다. 그리고 다시 그 책들을 하나씩 읽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내 아이에게도 수

준에 맞는 책을 골라 함께 읽다가, 가끔은 눈물이 핑 돌기도 했다.

문득, 아버지는 출판사 사장이 되거나 작가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의 딸이, 더 좋은 생각을 하고 더 깊게 삶을 성찰하면서, 더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책들을 다 락방에 켜켜이 쌓아두었을 거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그래서였을까. 나는 결혼하자마자 암 투병중인 시부모님의 병수발을 하고, 차례로 임종을 맞이할 때도, 어린 나이에 종갓집 맏며느리로 살면서 뜻하지 않은 일에 부대끼릴 때도, 몇 번의 유산으로 심신이 지쳐갈 때도, 남편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해 사경을 헤매는 그 순간에도, 남편의 사업이 힘들어서 집이 차압되는 그 절박함 속에서도, 내가 읽었던 책 속의 희망 구절을 찾아보면서, ‘잘 버티자, 잘 이기자.’ 스스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고비를 넘겼던 것 같다.

“니..... 거실에 저 책들은 우짤킨데? 안 갖고 갈끼가?”

나는 오늘도 그 말을 가만히 읊조린다. 그리고 지금 내 곁에서 책을 읽고 있는 아이에게도, 언젠가는 내 아버지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아들아, 때로 삶의 언덕을 넘고 삶의 절벽에 서고, 삶의 늪에 빠질 때마다, 할아버지가 남기신 위대한 유산의 의미를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지혜롭게 씩씩하게 잘 살아가거라.

김성

내일을 위한 시간

박남숙 대구 수성구 국제보상로 (범어3동)

둥근 돔 안으로 들어선다. 땅 밑의 묵은 먼지가 일렁인다. 어둑한 땅속에 수십 기의 돌을 다듬어 만든 덧널들이 보인다. 입구를 등지고 비치는 햇살은 현생이고 어둠의 저편은 죽은 이의 마지막 안식처다.

고령 대가야 왕릉전시관에는 먼저 살다간 이가 남겨놓은 흔적들이 발굴당시의 모습 그대로 재현되어 있다. 절대자는 현생의 삶을 내 세에도 누리고자 많은 부장품들과 함께 잠들었다. 이름 없는 이들은 생이 단절된 채 거대한 무덤 속에 잠겼다. 그들은 무엇을 논하고 있었는가. 어떤 것을 전하고 싶었을까. 1500여 년 전, 죽은 이들이 말을 걸어온다. 너는 어찌 살고 있냐고.

책은 내 삶의 도구가 아니었다. 재미와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일차원적 수준의 시간 때우기 방편이었다. 신문의 해독 불가능한 정치, 경제면을 제외하고 가십으로 메운 컬러판 연예, 사회면이 탐닉의 대

상으로 자리했을 뿐.

엄마가 되고 태교를 목표로 육아서적들을 샀다. 목적이 정해진 독서에 바람이 잔뜩 실렸다. 내 삶에 옹골지게 들어앉은 아이에게 모든 초점이 맞추어졌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작은 것보다 큰 것에 신경이 쓰였다. 다양한 유아전집도서를 장만하고 여러 개의 책꽂이가 벽면을 메워갔다. 아이가 제대로 읽는지 헤아리기보다 연령대에 맞는 책을 들여놓기에 바빴다. 욕심은 경제적 상황으로 주춤하는 위기를 맞았다.

출판영업원의 적극적인 권유에 마음이 흔들렸다. 어느덧 낯선 환경에서 좌충우돌하는 내가 보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회의가 찾아왔다. 솟기 없는 성향에 어울리지 않는 하루하루가 어깨를 짓눌렀다. 판매를 위해 메고 다니던 책의 무게로 비로소 삶의 무게가 가늠되었다. 어설픈 욕심에 일상이 엉망으로 어그러지자 책에 대한 미련이 사라져버렸다. 호되게 신고식을 치른 젊은 날이었다.

학부모가 되면서 도서관으로 발길을 옮겼다. 양손 가득 동화책을 빌려 읽힌 시간들이 늘어났다. 빌린 책들을 같이 읽다 감성에 젖어 들기도 했다. 결과만 바라보는 어른들의 일그러진 시선으로 동심을 재단한 '황선미 작가의 나쁜 어린이표'를 읽었다. 언젠가 나도 엄마의 반성문이라는 책을 써볼까 설핏 마음추가 움직였다. 책은 굳은 감성에 잔잔한 파랑을 물고 왔다.

도서관 출입이 거듭될수록 책을 보는 안목이 생겼다. 학교도서관에서 사서도우미와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도 하게 되었다. 알음알

음 책 소개를 부탁받기도 했다. 하지만 책은 내가 바라는 대로 학교 성적과 긴밀히 연관되지는 않았다. 아들에 대한 해묵은 집착의 끈을 놔버렸다. 오히려 그래서일까. 문제집을 풀려고 도서관을 찾지 않고, 책을 보고 도서관 강좌를 챙겨 듣는 시간들이 켜켜이 쌓여 순순하게 책을 탐독하는 아들로 자랐다.

가슴 속에 고이는 잡념들이 일상을 지배할 무렵, 아이를 위한 강좌와 동화책에 머물던 관심을 나에게로 옮겼다. 무수히 떠오르는 사념들을 풀어놓을 요량에 수필 강좌를 듣게 되었다. 소소한 일상의 우물에서 수필이라는 두레박이 건져 올린 삶에 대한 성찰이 문밖에서 노크를 했다. 가벼운 미열에 몸을 일으켰다.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 나섰다. 도서관 강좌 중에 ‘나를 찾는 책 쓰기’라는 타이틀이 마음을 끌어당겼다. 독서의 폐달도 제대로 밟지 못하던 내가 책쓰기 동아리에 가입했다. 두서없던 자기소개 시간에 아들 하나를 두고 있다는 말 외에 나를 대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제 속에는 하루에도 열두 번씩 떠오르는 상념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꺾는 방법을 배우면 무언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나를 찾는다는 밑도 끝도 없는 문구에 끌린 마음은 속내를 털어놓게 했다. “가다 가다 보면, 걷다 걷다 보면, 가고 싶은 곳에 가는 법이니~”

선생님은 부처님 신문답 같은 이야기를 했다. 글을 쓰겠다는 욕망이 바로 재능이다. 재능은 갖추었으니 거기에 노력만 합치면 능력자

가 된다는 격려에 눈빛이 반짝였다.

살아오면서 부정적인 마음과 힘들었던 일, ‘나는 안 돼.’라는 생각들을 종이 위에 나열했다. 갈기갈기 찢은 조각들이 종이 관 안에 안치되어 땅속에 묻혔다. ‘나는 할 수 없다.’의 무덤이었다. 할 수 없는 것을 묻었으니 이제부터는 할 수 있다만 남았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다 같이 박수를 쳤다.

어쭙잡은 글을 풀어놓던 날들이 해를 넘어갔다. 응어리진 마음을 들여다보고 서툴게 지어낸 글들을 발표하고 나면 가슴은 방망이질을 했다. 얼굴이 붉어지고 심장의 고동을 느낀 날들이 이어졌다. 다른 글을 소리 내어 읽을 땐 울리지 않던 심장박동이 유독 내 글을 발표하는 순간 크게 파동을 쳤다. 어쩌면 ‘가슴이 뛰는 일을 하라.’는 말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느껴졌다.

뜻이 맞는 회원들이 모여 스터디 활동으로 연결되었다. 책을 읽고 감상평을 나누었다. 한 가닥의 생각이 여러 가닥으로 합쳐져 굵은 동아줄이 되었다. 써온 글들을 서로 침삭해주며 모임은 탄탄해졌다. 중학교 책쓰기 동아리에 참여하여 아이들의 글을 매만졌다. 책 축제에 초대된 우리는 회원들이 출간한 책들을 전시했다. 활동모습을 담은 사진과 출간목록, 손으로 쓴 작품들이 파란 하늘에 걸린 만국기처럼 행사장을 물들였다.

노년기에 접어든 어르신들을 도와 기록으로 남기는 일을 맡게 되었다. 자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고심하는 백발의 노체가 지나온 생을 깊이 더듬었다. 남길 것과 지워버리고 싶은 것들이 떠

릿속을 어지럽히는 모양이다. 뺨뺨뺨 써내려간 손 글씨에 과거가 살아나 꿈틀거렸다. 자서전 속에 쏟아놓은 이야기는 당신의 삶을 떠나 우리가 거쳐야 할 인생길로 다가왔다.

한 생의 무게가 고스란히 전해졌다. 단어 하나에, 문장 하나에, 삶의 희로애락이 문단속에 녹아있었다. 못다 한 사연들이 보태지고 숨기고픈 이야기들이 몸부림치며 아우성이다. 삶의 모난 부분이 항변의 의지를 내보였다. 음지에 갇혀있던 낮은 목소리가 마침내 문을 열고 나왔다. 오랜 시간이 흘러서야 따뜻하게 품을 수 있었던 과거의 모습에 응원의 눈물이 어렸다.

인생은 한 권의 책이다. 살아온 모습에 따라 내용은 천차만별이다. 독자의 호불호를 상관하지 않고 오직 쓰는 이의 발자취에 따라 기억된다. 선조들이 남긴 서록들은 시간이 흘러 우리들 곁에 유산으로 남았다. 개인의 삶도 소중한 유산이 될 수 있으리라.

책속에 길이 있다 했던가. 책을 많이 읽었다고 인정받는 사람에게 길이 있는가 물어보았다. 야릇한 웃음만 짓던 표정에 혼란스럽던 기억이 떠올랐다.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다. 책속의 길은 '왜'라는 질문을 품은 사람에게 보인다는 것을. 질문은 책과 책을 연결하는 열쇠다. 의문을 해소하려 다른 책을 집어 든다. 삶의 지혜는 읽기와 쓰기의 합일에서 이루어진다.

고대의 유택들이 산등성이를 따라 즐비하다. 산마루를 장악한 묘지는 또 하나의 산이 되어 푸른 기운의 잔디를 입고 동그마니 서있다. 동그스름한 무덤은 천원지방(天圓地方)사상에서 비롯되었을까.

모난 세상에 살면서 하늘처럼 둥근 삶을 추구하라는 의미일지도 모른다. 오늘의 모습이 내일을 위한 시간으로 채워진다. 나는 지금, 인생이라는 책을 써나가고 있다.



책쓰기 동아리 <동행325 책쓰기>

|금상

나의 가장 幸福한 시간

이현희 대구 달서구 도원로 (도원동)

책갈피가 꽃혀있는 책을 다시 펼친다. 어제까지 읽었던 부분이 되살아나고 이제 그 다음을 읽을 차례다. 두꺼운 한 권을 하루나 이틀 정도 단숨에 읽을 책도 있지만 그런 책일수록 일부러 나는 조금씩 읽는다. 아껴둔 과자를 조금씩 꺼내 먹듯 읽는 것이 좋아서다. 즐겨 시청하는 드라마의 한 회가 갈등이든 위기든 무척이나 아슬아슬하게 끝나 다음 회가 무척이나 궁금해지고 기다려지는 그런 심리 같은 것일 수도 있다. 나의 독서 습관일 수도 있지만 좋은 책일수록 그렇듯 날마다 조금씩 음미하며 읽어야 한다는, 이를테면 양서(良書)를 판별하는 나의 기준 같은 것이기도 하다.

책을 읽는다. 낱낱의 활자들을 읽는 것은 비록 눈이지만 그들이 어울려 하나의 상(像)으로 마음에 또렷하게 맺힌다. 그런 심상(心像)들이 큰 의미나 울림으로 나의 가난한 마음을 더 알차고 풍요롭게 가

꾸는 것이라 여기는 것이 내가 아는 독서의 가치나 효용인 셈이다. 그리하여 우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내가 책을 읽는 시간은 짧은 길든 심심함을 달래거나 무료한 시간을 때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지적 욕구는 물론이고 나 자신과 타인들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결국에는 나 자신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려는 경건한 한 때인 것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을 그 자신이 가장 잘 아는 듯 여기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의외로 자신이 자신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독서를 통해 깨닫는다. 그리하여 독서는 고요히 책을 읽어가며 자신의 내면에서 이는 소리들에 귀 기울임으로써 타인이 아닌 내가 나와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이다.

오래 전의 일이지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지금은 없어진 모 출판사에서 주부를 대상으로 한 독후감 공모에 응모하여 비교적 큰 상을 받았다. 읽는 것은 좋지만 쓰는 것에는 소질이 없어 응모하겠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한 여자의 삶을 기록한 책의 내용이 지금껏 걸어왔고 앞으로 걸어갈 내 삶의 방향과 어찌 그리도 비슷하게 느껴지던 것인지 그리하여 오직 공감(共感)한다는 그 느낌 하나로 솔직하게 쓴 것이 뜻밖에 감사해야 마땅한 결과를 얻은 것이었다. 그러나 독서가 공감만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는 전혀 다른 이 질적인 느낌을 받는 것이라도, 그것은 그것대로 내가 겪지 못한 또 하나의 삶으로 혹은, 간접 경험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니 독서를 통해 얻는 것은 세상의 다양한 삶들과 지식들, 그리고 가치들에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다. 가끔 파란만장한 누

군가의 일생을 다룬 책을 읽고 나면 마치 내가 그런 삶을 산 것 같은 생각이 들어 한참동안 가슴이 멍멍해지기도 하던 것이다.

나의 가장 행복한 시간은 마음을 가지런히 하여 책을 읽는 시간이지만 그 못지않게 행복한 시간은 책을 고르는 시간이다. 동네 서점이나 도심의 큰 책방에 들어서면 순간부터 이미 포만감이 들고 그곳에 들어 서가에 가지런히 꽂혀있는 수많은 책들을 이것저것 펼쳐보며 고르는 그 시간이 조금도 지루하거나 아깝지 않고 즐겁기만 한 것이다. 누군가가 들으면 공연한 지적 허영심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많은 책들과 그 안에 담긴 내용들이 그 때만큼은 다 내 것인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서이다. 독서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남편도 그렇고 나도 그렇지만 좋은 책은 빌려보는 것이 아니라 구입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책을 자주 사는 편인데 남편은 주로 인터넷 서점을 이용하는 반면에 나는 직접 서점에 가서 서가에 꽂혀있는 책들을 꺼내 펼쳐 눈으로 보며 고르는 것이 좋다. 언젠가 남편이 농(弄) 삼아 서점에 직접 가는 것이나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것이나 그 책이 그 책 아니냐며 말해 내 자못 진지한 표정으로 서점에 가면 그 많은 책들이 내게 말을 거는 것 같기도 하고 책들에서 풍겨나는 제 각각의 향기 같은 것이 있다고 답했는데 남편이 내 말을 믿든, 믿지 않든 이것이 내가 직접 서점에 가는 이유이다. 필요한 것들을 집에서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세상이기도 하지만 같은 빵이라도 주문해서 배달된 빵보다 이른 아침 빵가게에 직접 가서 갓 구워낸 빵에서 풍겨나는 특유의 짙은 효모 냄새를 코로 맡고, 모락모락 피어나는 수증기

를 눈으로 보면 빵이 더 먹음직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물론이고 까닭 없이 하루가 더 행복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프랑스 한 여류 작가의 말과도 통하는 답이기도 한 것이다. 조금 더 과장해서 말하면 내게 서점은 종교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하나의 성지(聖地) 같은 곳이라 그곳에 가는 것은 일종의 순례(巡禮)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니, 어쩌면 독서가 책을 통해 지금껏 모르던 것들을 앞으로 써 깨달음을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또한, 책을 교주(教主)로 하는 하나의 종교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곳에서 고르는 책들에 나만의 특별한 취향이나 관심분야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이것저것 가리지 않는 편이지만 굳이 따져 묻는다면 내가 경험하지 못한 삶을 다룬 수필이나 소설을 즐겨 선택하는 편인데 그것이 비록 타인의 삶이기는 하지만 이해와 공감을 통해 나의 삶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니 어떻게 걷던 오직 한 길일 뿐인 내 삶의 영역이 그만큼 넓어지는 것이라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책속에 길이 있다.’는 말의 의미는 넓고도 깊어 한 줄기 외길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길들이 그 안에 있어 사람들은 책을 읽고 깨달으며 저마다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삼여 년 전부터 저녁식사 후 남편과 함께 아파트 인근을 산책하고 돌아와 짧게나마 티타임을 갖고 있다. 그 이전에도 이따금 그런 적은 있었지만 주로 두 딸의 신상 문제와 뼈뺏한 살림, 그리고 한낱 가십거리에 지나지 않는 TV 드라마의 전개와 결말에 관한 이야기 등등으로 대화를 나누었으나 삼여 년 전부터는 각자 읽은 책에 관한 소감, 이를테면 남편은 자신이 감명 깊게 읽은 ‘메디슨 카운티의 다

리'의 내용을 요약해 들려주고 주제가 되는 아주 늦게 찾아든 늙은 연인(戀人)의 애뜻한 사랑에 대해 내게 물었고 나는 사춘기 시절 읽기는 했으나 당시에는 그 의미도 잘 몰랐고 기억조차 가물가물해 근래에 다시 읽은 '폭풍의 언덕'에서의 히스클리프의 순수한 사랑이 어쩌다 그 자신과 연인을 파괴하는 광기(狂氣)로 변질되었을까 하는 것에 관한 남편의 생각을 묻기도 했다. 그런 대화 중 재미있던 것은 소설의 무대가 되는 미국 아이오와(Iowa)주의 메디슨 카운티와 이미 한 차례 다녀온 유럽 여행을 다시 가게 되면 반드시 여행 코스에 '폭풍의 언덕'의 무대가 되는 영국 요크셔 지방의 하워스(Haworth) 마을을 넣어 찾아가보자는, 실현 여부와는 관계없이 생각만으로도 자못 즐겁고 설레는 희망을 가지게도 되었던 것이다. 특히, 광기어린 눈빛의 한 사내가 잃어버린 사랑에 대한 절망으로 히스클리프 만발한 바닷가 언덕을 포효하며 정처 없이 쓰다니는 소설 속 광경을 머릿속에 그리며 찾아간 그곳에서 그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짐작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사랑에 관해 좀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책을 사랑한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한 권의 책을 다 읽고 난 후 그것이 감동이든 지식이든 그로 인해 그만큼 더 내 사유(思惟)의 깊이가 깊어졌으리라는 성취감을 사랑한다. 책을 읽고 느낀 감동으로 나와 타인, 그리고 세상을 보는 내 마음의 눈은 더 진지하고 따듯해 질 것이며 책속의 길을 따라 걷다보면 더 많은 길에 내 발자국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얼마 전부터 틈틈이 칼 세이건(Carl

Sagan)의 'Cosmos'를 읽고 있다. 그를 읽는 동안 나는, 내 의식은, 수시로 넓고 넓은 우주와 수억 광년(光年) 떨어진 미지의 행성들을 떠다니고 있을 것이며 우주를 한 권에 담아 그 두께가 만만치 않은 책을 다 읽고 나면 나는 자주 밤하늘의 별들을 올려다 볼 것이고 어쩌면 어느 밤에는 머나먼 외계의 어느 행성에 단숨에 닿아 그곳에서 창백한 푸른 점인 지구를 보고 있기도 할 것이다.

오늘 저녁에도 늘 그렇듯 남편과 나는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며 책 속의 길을 따라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며 걸어갈 것이다. 나의, 가장 소중한고도 행복한 시간이 새삼 기다려진다.

은성

독서는 힘이다! 함께 읽기는 가족 사랑이다!

민경희 인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연희동)

유년시절 막내로 자라 늘 혼자였다. 다른 형제들이 도시로 또는 결혼하여 외지로 떠난 농촌 집에서 연로하신 부모님과 함께 지냈다. 유년시절의 외로움을 달래준 것은 학교 도서관에 있는 책이었다. 책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 천국이었다.

60년대 농촌 집에는 마땅히 읽을거리가 없었다. 유일하게 시골 동네 초등학교에 학교도서관이 있었다. 도서관의 가지런한 서가에는 다양한 제목의 책들이 가득했다. 처음 책과의 만남의 동기는 책을 빌리면 대출대장에 이름을 쓰게 되어 있어서 책 뒷면에 이름자 올리는 맛으로 열심히 빌려봤다. 책에서 발견한 주인공들의 이야기나 글의 표현은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문처럼 가슴 설레게 하였다. 초등학교 시절 일기쓰기는 숙제였다. 매일 반복된 일상이어서 한 장 채우기가 어려워 킁킁대지만 책의 줄거리와 느낌을 쓰다보면 한 장

가득 금방 써내려 갈 수 있었다. 유년기 책과의 인연은 성장기 내내
갈급함의 샘이었고 삶의 자양분이 되어 주었다.

유년기를 지나 청소년기에는 폭풍처럼 방황의 시간이 찾아왔다.
그때 읽었던 책은 간접 경험이었지만 번개처럼 스치는 빛과 함께 길
이 되어 주었다. 아이를 키우고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어릴 적 책을 읽
은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것 같다.

주부가 되고 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만나면서, 책 읽기를 통한 성장
을 같이 하고 싶어졌다. 요즘 아이들은 멀티미디어와 스마트기기 등
의 등장으로 책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 정보화기기를 통한 빠
른 정보는 한 인간의 성장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손안
에 정보창고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기기는 짧은 시간에 정보의 획득
에는 의미가 있지만, 깊은 성찰을 통한 사고력을 길러내는 데는 부
족함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독서는 아이들의 인문학적 소양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감능력을 형성
시켜주는 발판이 될 수 있다. 학창시절에 경험하는 직·간접적인 독
서체험은 한 인간의 성장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안다.

요즘 아이들은 바쁘다. 예전처럼 도서관에 여유 있게 앉아서 책을
읽지 않는다. 도서관으로 향하던 발걸음이 학원으로 향한다. 독서
가 대학을 가는데 스펙이 되다 보니 책의 맛을 느끼기보다 책의 권
수를 더해가고 있다. 이런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독서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치유되지 않는 아이들의 행동교정을 책을 통

한 나눔에서 효과를 볼 수 있음을 알기에 책임기를 무엇보다 앞서서 권유하게 된다.

교사이기에 수업을 통한 독서교육을 강조하게 된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 자신의 성장 뿐만 아니라 미래의 주부로서 독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싶다. 수업에서 읽기와 쓰기, 말하기를 시켜보면 매우 우려되는 점이 많다. 책 퍼기를 힘들어하는 아이들과 함께 하는 독서는 교과와 연계해서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읽을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댄다. 이를 해결해 주기 위해 학기 초 권장도서를 소개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수업시간에 과제처럼 책을 소개하고 읽기를 유도하였다. 교과내용이 풍성해지고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 내는 마중물과 같은 효과를 가져왔다. 종합적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점이 교과서 밖 독서로 유인하기가 좋았다. 개별 구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도서관 책 구입 시기에 신청하는 것도 좋다. 같은 책을 함께 이야기 할 시간에 모둠별로 준다. 함께 역할극 해보기, 저자에게 편지쓰기,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찬반 토의하기 등은 서로의 생각을 들으면서 감동이 배가 되고 수행평가도 쉽게 해결된다. 학생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역할을 주는 방법도 도움이 되었다. 아이들과 함께 하다보면 산만함 때문에 책 한권의 꼼꼼한 토의가 다 이뤄지지 않지만, 놓쳤던 내용도 알게 되고 서로의 차이로부터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된다. 아이들은 안다. 책에서 답을 찾게 된다는 것을 안다. 마지막에는 실천교과로서 느낀 점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게 함으로써 성장하는 독서가 되

게 하였다. 이들의 독서는 훗날 가족독서로 성장할거라는 믿음과 함께 책! 책!을 강조한다.

학교에서 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독서활동은 매우 의미가 크다. 권장독서를 주된 수준을 3단계로 하여 책임기 안내를 하는 것도 좋다. 좀 더 깊이 있는 독서를 위해서 독서동아리를 모집하여 지속적으로 독서토론을 하였다. 독서토론의 동기 부여를 위해 전문가를 초빙하여 주제 강의를 듣게 하였더니 독서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지속적으로 참가한 희망 학생들을 대상으로 토론 동아리를 구성하였다. 공부와 병행해야 하기에 월 1회 정도로 시기를 정하였다. 첫 번째 모임에서는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자유목록을 주고 각자 읽고 느낌을 발표하게 하였다. 도서목록을 정하고 발표방법을 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진행자의 입장에서 발표할 때 각자의 수준과 내용 이해의 차를 고려하여 적절한 피드백도 필요하다.

첫 모임 이후부터는 도서목록을 정하고 발표방법을 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었다. 읽고 느낀 점만 발표하다 보면 책의 흐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어서 발제문 형식의 질문을 안내하면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다. 독서토론의 백미는 각자의 생각을 공감할 때 느낌이 배가 되었다. 혼자보다 함께 읽기는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고 본다. 독서 토론의 연장선으로 쓰기를 시도하면 독서의 성장에 훨씬 도움이 되었다. 독서일기를 서평쓰기 형식으로 제안하여 자유롭게 써보게 하였더니 처음에는 부담을 느끼다가도 책의 여운이 오

래 가서 의미가 좋다는 반응이다. 독서토론을 진행하다보면 아이들의 생각이 얼마나 다양한지, 수용하는 마음가짐은 얼마나 순수한지를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

좀 더 폭넓은 독서기회를 갖고 싶어 학교 밖 함께 읽기를 통한 독서모임을 하게 되었다. ‘나로부터 비롯되는 변화! 대한민국 독서혁명’ 타이틀을 가진 나비 독서모임에 나가게 되었다. 지정도서와 자유도서를 선정해서 각자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다. 나이, 성별, 직업이 다양한 구성원들은 책을 통한 변화를 하고 싶은 공통점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2주에 한권씩 책을 읽고 2시간 정도 나눔을 하는 형태이다. 모임을 이끄는 진행자가 있고 최소 6명이상 모둠별로 책 나눔을 한다. 토론은 읽은 내용에 대한 작가의 핵심 생각을 발췌하고, 깨달은 부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그 내용을 삶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른바 본·깨·적 독서법이다. 적용을 통해 각자의 인생관과 직업관이 바뀌는 변화는 독서가 주는 나비효과라고 볼 수 있었다. 책을 읽기만 할 때는 덮는 순간 기억이 저만치 사라지는데 독서 토론을 함으로써 기억이 지속될 수 있어서 의미가 컸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토론은 각기 다른 생각을 얻을 수 있어서 더욱 풍요로운 한권의 책을 담아가는 기회가 되었다.

나비 독서모임은 토론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발표자의 이름을 불러서 구호를 외쳐 힘을 내게 한다. 발표순서가 오면 이름자 뒤에 “OOO 힘!”을 외쳐준다. 마무리에서는 성찰의 기회를 주고자 소감

한마디를 나누고 기념촬영을 한다. 분기별로 회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참여기회를 주고자 작가를 초청하여 독서 강좌를 마련한다. 일생 동안 저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기에 책 읽기의 의미를 홍보하는 기회도 되고 작가의 생각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넓힐 수 있어서 큰 의미가 있었다.

토론에 참여하고 난 후, 가족과의 독서모임으로 발전할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좋다. 어느 날 남편이 책보다는 TV시청에 몰두하였는데 책상위에 놓아 둔 책을 집어 들고 몇 장 넘기면서 어느새 책속에 파묻히는 모습을 접하게 되었다. 가족들과 돌려 읽은 뒤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책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단절된 대화도 살아나고 깨닫지 못한 불만도 찾아주고 치유하는 시간이 된다. 독서모임에 오기 위해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 해도 아이는 부모의 모습을 매우 자랑스러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교에는 학부모회가 있다. 그동안 학부모회의 역할이 미미하다보니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싶어졌다. 학부모회를 통해 기존 모임의 성격에 책읽기를 통한 독서모임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권유하였다. 약간 망설임도 있었지만 10명 정도 참여의사를 밝혔다. 처음부터 힘들어 할 수 있어서 첫 시작은 동화책을 골라 인쇄하여 나눠드렸다. 진행자가 미리 준비한 발제 자료를 나눠드린 후 첫 모임을 하게 되었다. 첫 시작은 책 전반적인 소감을 나누는데 다행히도 첫 주자가 말문 열기를 먼저 하셔서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고루 발표를

하였다. 성공의 전략은 책 내용이 어렵지 않았고, 말문 열기가 쉽도록 발제 자료가 제공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평소 가정을 돌보고 자녀들을 키우느라 책을 읽지 못했거나 읽어도 뒤돌아서면 잊어버렸는데 함께 읽고 토론하다보니 기억에 남아서 매우 좋아하셨다. 읽고 토론하다 보면 각자 삶의 이모저모를 들키기도 하지만 아픈 기억들에 대한 하소연과 함께 자가 치유도 되어 마음을 일으켜 주기도 하였다. 책의 두께와 내용은 얇고 평이한 수준부터 제시하여 부담을 최소화 한 점이 좋았다. 분위기 전환을 위해 학교 밖 카페에서 토론회를 시도했다. 독서토론을 할 만한 공간을 찾아보면 격리된 방이 있다. 외부인과 차단된 공간에서 차를 마시면서 하는 토론은 심신이 고무되면서 더욱 풍성해 질수 있었다. 토론은 발제문을 자유논제와 선택논제로 나누고 거기에 대한 각자 느낌을 발표하다보면 서로 다른 입장에 대한 반전의 시간도 되고 자신의 입장에 적용해 보는 기회도 된다. 독서토론모임이 활성화 되어 교육청 차원의 동아리로 등록하게 되었다. 예산을 지원받게 되어 책 구입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었다. 교육청 차원의 학부모 동아리 축제에 그동안 나눈 독서 토론에 대한 서평, 소감엽서, 내 마음의 글귀 캘리그래피 등의 전시까지 기획하여 멋진 전시회를 꿈꾸고 있다. “진즉 이런 기회가 있었다면! 아이들과 일찍 책읽기를 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하는 반응이 곧 자녀의 독서 권유로 연결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었다. 부모가 독서의 맛을 알고 아이도 읽게 하여 함께 읽기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나눈 경험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자발적으로, 학부모 독서토론 모임을 지역신문에 독서활동으로 소개하고자 활동내용을 작성하고 기념사진도 찍고 매우 흥미롭게 참여하고 있어서 의미있는 도전이었던 것 같다. 읽었던 책의 발제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서평 형식으로 써서 영원히 기억될 독립 출판 형식의 문집도 만들어 보자는 제안도 하신다. 함께 읽고, 토론하고, 함께 쓰기를 통한 삼박자 독서는 늘 가슴을 뛰게 하는 삶의 가치이고 힘이라고 본다.

엄마의 잔소리 대신 책속 글귀를 인용한 쪽지편지에서 아이들은 마음의 양식이 되어 배부르게 성장한다. 사랑의 표현도 책선물이 좋다고 한다. 책을 받았을 때 가장 기뻐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



은성

좋은 당신을 위해 올린다.

소정혜 대구 달서구 조암로 (월성동)

“내가 말했지? 당신을 만나기 전에는 난 없는 거라고.”

요즘 다시 빠지기 시작한 드라마 여주인공이 흔들리는 남편에게 애절하게 뺨는 대사이다. 지금 내가 우리 아파트 도서관에게 꼭 하고픈 말이다.

‘책마루도서관, 네가 없었더라면 지금의 나는 없는 거라고.’

8년 전 지금 살고 있는 월성동 아파트로 이사 와서, 우연히 도서관 봉사자 모집공고를 보았다. 뭔가에 이끌리 듯 도서관을 찾아갔다. 마흔 살 가까이 살면서 ‘여기 저 있어요. 그 일은 바로 제가 찾던, 하고 싶은 일이에요’라며 내 발로 찾아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초등학생 두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라면 요 정도는 해야지 하면서 학교 책임어주기 모임과 녹색어머니회가 가정을 벗어난 나의 작은 활동의 전부였다. 그냥 동네에서 사람 만나기 좋아하고 남 보이기에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엄마, 아내라는 타이틀을 가진 남부럽지 않은 여자. 그게 내가 그려왔던 나의 이미지였다. 거기에 충실히 살아왔고, 또한 그다지 노력하지 않아도 헌신적으로 날 키워내신 부모님과 내가 하는 일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 남편 덕분에, 아들 딸 두고, 내가 생각했던 그림에 가깝게 살고 있었다.

그렇게 살던 나에게, 도서관 봉사자라는 색다른 역할이 나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개관 전 모임에서 관장을 맡아할 사람을 뽑자는 말에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럼 제가 할게요.’라고 손을 든 책마루도서관 초대관장님을 보았다. ‘아니, 완전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하는 아파트도서관 관장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니. 어떻게 저렇게도 자신의 일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지? 그럼 나는 내가 하는 일에 한 번이라도 확신을 가져 본 적이 있었던가?’

그 날 초대관장님의 자신에 찬 얼굴은 내 가슴 속 깊이 각인되어, 그 후 무슨 일이든 주저함과 나태함으로 무장한 내가 덩석 새로운 일에 뛰어들도록 뒤에서 내 등을 살며시 밀어주는 보이지 않는 손이 되었다.

봉사자가 10명 남짓 모였을 때, 관장님의 성화에 못 이겨, 가까운 달서구 독서대학까지 수강 신청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달서구청 대강당에 자리를 앉았다.

대구대 도서관과 윤희운 교수님의 첫 수업이 시작되었다.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이 대단합니다. 뭐든 배우려고 이 오전 시간에 여기서 강의를 듣는다는 건 칭찬받을 만합니다.’라는 말씀과 함

게 우리나라 도서관의 실태와 도서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평생을 연구하고 활동하시는 모습에 감동했다. 그림책, 독서코칭, 독서심리, 디자인과 교수님 등 내가 평소에 접할 수 없었던 장르의 전문가들의 수업을 들으며, 문득 나 자신에게 물음을 던졌다.

‘저 분들은 왜 네 앞에 서 있고, 너 왜 의자에 앉아 있는 거니?’

‘저 분들이 모두 자신의 분야에 우뚝 서서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강의하는데, 그럼 네가 여태껏 이론 게 있으면 말해봐.’

이런 저런 생각들이 마구 떠올랐다.

맞아! 난 20년 전에도 요 모습 그대로 강의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예전 내 앞의 강단에서 우리 과 교수님들도 이렇게 강의를 하셨다. 그 때 매시간 이어지는 강의들을 왜 그리 철없이 가벼이 여겼던가! 그 분들이 내뿜는 지식의 향연이 늘 나의 것이 아니라고 한탄만 했었다. 나는 이 세상을 잘 모르는데, 야속하게도 주위의 모든 것들이 날 비웃는 듯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게 아니었구나! 나의 가족, 친구들, 교수님 모두가 날 향해 손을 내밀고 있는데, 나는 내 안에 갇혀 눈을 감고 있었던 것이다.

이 생각에 닿는 순간, 나도 모르게 후회의 눈물을 흘렸고, 동시에 뒤늦게라도 깨달은 내 자신에게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늘 쉬운 길, 가 봤던 길, 실수하지 않을 길, 남에게 싫은 소리 듣지

않을 길만을 찾아 다녔었구나. 지금부터는 힘들어 보이는 길, 안 가 봤던 길, 실수할 수도 있는 길, 남에게 싫은 소리 들어도 내가 좋아하는 길을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우선 독서대학 심화과정인 논술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함께 두 달 동안 공부하며 만났던 분들 15명이 모여 독서동아리도 시작했다. 마침 내가 사는 아파트가 대구 최초 평생학습마을로 지정되어, 홍보분과장이라는 직함으로 바쁜 나날을 보냈다. 평생 만날 것 같지 않았던 관련 공무원들과 만나 마을사업을 의논하고, 리더양성프로그램에 빠짐없이 참여하여, 매 강의 때마다 나 자신의 틀이 조금씩 깨어지는 걸 느끼며, 주저함 없이 나 자신을 던졌다.

그 때부터 달서구청 사이트와 거리의 현수막, 각 종 공고문과 안내책자 등 눈에 보이는 대로 꼼꼼히 살펴보고, 시간만 되면 무조건 수강신청을 했다. 특히 역사, 미술, 음악, 문학, 철학 등 다양한 인문학 강의를 듣기 위해 저녁 시간, 또각또각 달서구청으로 향하는 내 구두 소리가 그렇게 경쾌하게 들릴 수가 없었다. 매일 매일 나에게 일어날 일과 마주칠 사람들에 대한 기대에 가득 차 있었고, 또한 배움의 즐거움이 주는 선물에 설레는 소녀가 된 기분이었다.

세상에 리더들은 원래 타고 태어나는 거라 믿었던 내가, 아파트 도서관 관장 직에 올랐다. 정말 후회 없이 도서관을 위해 아니, 나 자신을 위해 머리 위 안테나를 온통 도서관에 맞춰 놓고, 나의 노력과 능력의 보상이나 달콤한 열매를 맛보는 귀한 2년을 보냈다. 구립도서관 홈페이지에 용기를 내어 남겼던 독서후기가 작은 책자로 나오

는 소소한 즐거움을 느꼈고, 독서릴레이 행사에 토론자로 참여하여 뜻 깊은 시간도 보냈다. 또 달서구 작은도서관 ‘아이들과 함께 독서 릴레이’와 ‘독서 골든벨 대회’ 사회자로 진행을 맡는 영광도 누렸다.

고등학교 시절 교과서 지문이라도 읽는 시간이 되면, 국어 선생님께서 시킬까봐 얼굴도 못 들고 벌벌 떨었던 나였다. 앞에 서는 게 너무나도 두려워 기회가 와도 늘 도망치면서, 나서지 않는 게 겸손과 미덕인 양 자기합리화 시키면서 살아온 나다.

지금 내 생활은 도서관에서 찾은 기적이다.

달서구 인문학아카데미 심화과정에서 계명대 국문과 교수님이 이런 글귀를 보여주셨다.

누구를 위하여 좋은 울리나- 존 던(1572~1631)

그 누구도 스스로 온전한 섬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대륙의 일부분,

전체의 부분이다.

만일 흙 한 덩이가 바다에 씻겨 나가면,

유럽 대륙이 그만큼 작아질 것이고,

바다의 갑(岬)도 그럴 것이고,

당신의 친구나 당신 자신의 영지(領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 누구의 죽음도 나를 줄어들게 한다.

왜냐하면 나는 인류에 개입되어 있으니까.

그러니 누군가를 보내 알려하지 마라.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냐고.

종은 당신을 위해 울린다.

영화 제목으로 로맨틱한 고전으로만 알고 있던 나에게, 교수님은 목청 높여 외치셨다. 왜 달나라에 가려고 그 많은 경비를 쓰는가? 차라리 우리 지구의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원조해야 한다. 왜 가까이 있는 내 주위를 돌보지 않고, 먼 곳만 바라보느냐, 기아에 허덕이는 아이들은 불과 60년 전의 우리나라 아이들이었다. 세상 모든 일이 나 자신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게 없다며, 내 주위를 꼭 살펴 관심과 도움을 줘야한다고 하셨다.

아아-----. 지금 이 수업이, 이 교수님이 나에게 소리쳐 일깨워 주고 있었다. 남을 위하여 종이 울리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종은 울리고 있었다. 나에게 알려 주고 싶은 게 있다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만나는 사람들 모두가 소중한 거라고. 모든 것에서 배울 수 있다고.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고, 열심히 살라고. 그리고 주위를 늘 돌아보라고.

내 귀에 쨍그랑 쨍그랑 울리는 종소리가 이제야 들리기 시작했다.

그 후 가끔씩은 예전 소심함이 불쑥 불쑥 얼굴을 내밀어 뒷걸음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나는 여전히 세상을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 나의 편협한 생각의 조각들을 훌훌 날려 보내려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또 하나의 결실을 보았다. 6년 전, 독서대학에서 부러워했던 '서서 하는' 강의를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주위 분들의 권유에 용기를 얻어, 밤새워 남편한테 파워포인트를 배워서, 10회 차 수업을 무사히 마쳤다. 어느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나만의 수업을 만들기 위해, 그동안 배우고 읽고 느끼고 생각했던 것들과 내가 좋아했던 분야에 모든 에너지를 모아서 매 시간 강의를 진행했다. 올해 여름은 내 생애 가장 빛나는 해였다.

얼마 전, 어느 강좌를 듣던 중, 나 자신을 정의해보라는 선생님 말씀에,

'곧 뭔가 될 것 같은 사람,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지금의 나를 돌이켜보았다.

시골 작은 마을에서 그림책 세트와 어린이 잡지책을 부지런히 사다 주신 엄마, 고등학교 2학년 때 고전 책 제목을 술술 말하면서 아무것도 몰랐던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천 원짜리 마당문고를 읽게 만들어준 앞자리 친구,

8년 전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한 나에게 공지영 작가의 '내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라는 책을 선물로 주었던 딸 친구 엄마,

무슨 일이든 앞장서서 일하는 게 결국 나를 이롭게 하는 일이란 걸 몸소 보여줬던 책마루도서관 초대관장님, 나의 게으름을 사랑의 채찍질로 함께 해 준 독서동아리 회원님들....

그 동안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강의들이 나를 세우고 다듬고 매

일 매일 새로 태어나도록 만들어주었다. 감사한 일이다.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한 곳이 바로 책마루도서관이었다.

지난 해, 도서관 개관 5주년 기념식 겸, 관장 이취임식에서, 함께 모인 봉사자와 찾아오신 내빈께 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관장직을 맡아왔던 지난 2년 동안 제일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즐거웠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책마루도서관에 많은 빛을 졌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또 서게 될지 기대해주세요. 제가 받은 사랑만큼 우리 도서관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 더욱 더 고민하고,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토록 확신에 찬 말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있었던 것 또한기적이었다. 난 오늘도 나의 작은 소망들을 이루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내 앞에 펼쳐진 환한 빛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 한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

이은성

유혹

윤승선 부산 중구 대청북길 (대청동4가)

‘책은 또 다른 책을 유혹한다.’ 도서관 입구 현수막에 쓰여 나부끼던 말이다. 오, 멋진 유혹! 정말 책은 또 다른 책을 유혹한다. 이런 유혹이라면 얼마든지 넘어가도 좋으리. 보수동 꼭대기에 있는 중앙도서관으로 오늘도 나는 유혹 당하러 간다.

서구청 앞에서 탄 마을버스는 구불구불, 스릴과 서스펜스가 넘치는 길을 달려 더도 말도 털도 말고 중앙 도서관 딱 정문 앞에 선다. 버스에서 발을 내리는 순간, 나는 여왕이 된다. 설렘과 기쁨을 신하로 거느린 우아하고 품격 있는 여왕은 수많은 책 군사들이 사열을 기다리는 열람실로 들어선다. 여왕의 눈에 들어 간택되기를 바라는 책 군사들을 날카롭지만 너그럽게 살피고 다닌다. 음, 훌륭하고 멋진 군사들이 많군. 천군만마를 얻은 듯 내 마음은 충만해진다.

이 책 저 책 읽을 욕심으로 행복한 고민을 하던 나는 급기야 망상에 빠진다. 볼모로 잡혀와 하필이면 도서관에 갇힌, 나는 이웃 나라의 공주. 날 구하러 올 때까지 유유히 책을 읽으며 지낸다. 한국 소설을 섭렵한다. 나를 구하러 올 기척이 없다. 날 구하러 오지 않아도 나는 초조해 하지 않으리. 한국 비소설들을 읽고 외국 소설들을 읽고 외국 비소설들을 읽고. 그래도 구하러 오지 않는다면 3층 열람실로 옮겨달라고 한번쯤 애원해볼까? 그러나 결코 불안에, 공포에 내 맘을 뺏기지는 않으리. 그렇게 책 속에 묻혀 늙어가도 좋으리. 나는 여전히 기품 있는 이웃나라의 공주. 품위를 지키며 늙어 가리라, 책 속에서. 난생처음 맞이한 이 자유로운 축복을 평화롭게 즐기리. 상상 속에서 나는 마냥 행복하다.

남편은 이런 날더러 현실 부적응 주의자라고 한다. 현실을 모르는 소설 속에서 산다고. 소설 속 주인공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빈정거린다.

뭔 소리! 살다보니 소설보다 더 소설적인 게 현실이더라.

우리 가족에게 경제적 위기가 찾아왔던 한 때 나는 더 책 속으로 숨어들었다. 한 친구는 도서관 끊어라, 책 끊어라, 돈 되는 일을 하라, 고 충고했다. 그러려고 해봤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였다. 돈 되는 일은 나에게서는 돈도 안 되면서 나를 더 무기력하게 했고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 경제적인 가난보다 정신의 가난을 먼저 해결해

야 했다.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할아버지’는 나에게 말해주었다. “너무 걱정하지 마. 괜히 고민해봤자 도움이 안 돼. 어차피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세상은 살아가게 돼있다” 고. 나는 소설 속 세상으로 들어가 주인공이 되어본다. ‘영혼의 편지’를 읽으며 가난과 불안과 고독 속에서 그림에 열정을 쏟아 붓는 고향이 되어도 보고. 남편과의 불화와 힘든 시집살이를 재능으로 빛내는 ‘난설현’이 되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나는 알게 되었다. 이 고통과 슬픔을 품위 있게 견디려면 행복에도 불행에도 충실해야 하는 걸. 비상은 고통 끝에 겨우겨우 온다는 걸. 슬픔과 고통이 꿈의 궁전도 짓게 한다는 걸. 그래서 고난이 언제나 비극은 아니라는 걸.

책을 읽는 동안 나는 내 처지를 잊게 되고 내 고난은 너무나 하찮게 여기게 되었다. 내 엄살이 부끄러워졌다. 이렇게 책은 슬픔이 번지는 걸 막아 주고, 지옥이 세력을 넓히는 걸 막아주었다.

‘덕혜옹주’가 되어 냉대와 감시 속에 치욕을 견디며 살아본다. 17살에 엄마가 되어 희귀병을 앓는 자식을 키워보고, 부모보다 빨리 늙어버리는 병을 가지고도 ‘두근두근 내 인생’을 살아보기도 한다. ‘감옥에 가기로 한 메르타 할머니’와 함께 노인을 홀대하는 사회에 흥분하며, 체념하지 않고 씩씩하게 사고치고 다니는 할머니가 되어 본다. 성격 까칠한 ‘오베’가 되어 까칠함 뒤에 있는 따뜻함으로 이웃들을 보듬아 주기도 한다. ‘할머니가 미안하다고 전해 달랬어요’

의 할머니처럼 미래의 내 손녀손자에게 슈퍼히어로 할머니가 되겠다고 다짐도 한다.

지독한 사랑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 사랑을 잃고 비틀거리는 비련의 여인이 되기도 한다. 어느새 나는 소설 속 주인공이 되어 그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더 섬세하고 따뜻하게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예전엔 당연했던 일들이 이제는 고맙다.

학자도 정치가도 사상가도 아닌 아버지인, 지아비인, 동생인 정약용이 되어 편지를 쓰고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를 나는 아들딸이 되어, 아내가 되어, 형이 되어 읽는다. ‘책만 보는 바보’가 되겠다는 야무진 꿈도 꾀다. 마음만 있고 정작 행동은 하지 않는 내게, 하찮은 행위라도 자연스럽게 몸에 밸 때까지 반복하여 자유를 만끽하라,는 장자의 귀뜸을 깊이 새긴다. 하늘과 땅과 우주를 가르는 아득한 ‘열하’의 호곡장이 아니어도 내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 사랑과 미움, 욕심을 다 토해 낼 나만의 호곡장을 찾아도 본다.

책을 읽으며 나는 세기를 넘나들고, 공간을 넘나들며 산다. 남자로도 여자로도 노인으로도 젊은이로도 어린아이로도 살아본다. 사람들의 상처는 내 상처가 되고, 옛 스승들의 철학은 내 철학이 된다.

어쩌면 앞으로 내게 닥쳐올지도 모를 일을 미리 겪어보기도 하고, 내가 전혀 상상도 못할 다른 세상을 구경하기도 한다.

이보다 더 매력적인 일이 있을까?

책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 야물게 만든다. 아니 책은 나를 말랑말랑하게 만든다. 부드럽게 만든다. 나는 앞으로 더 누구일수 있을까?

도서관 다녀온 날, 아무 것도 가진 것 없던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하다. 책은 내게 아무 것도 가지지 말고 모든 걸 다 가지라고 유혹한다.

열쇠 창고

문은주 대구 달서구 선원남로 (이곡동)

십 년 만에 방문한 그곳은 낯설었다. 두근거리는 마음을 애써 진정하려고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독서카드다. 버리지 못하고 간직하다가 가끔 꺼내어 보던 카드는 그때의 시간들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마음이 편안해진다. 손에 작은 힘이 들어간다. 카드에 선명하게 적혀 있는 도서관 이름이 눈에 들어온다. 작은 도서관, 원래부터 그 자리에 없었던 것처럼 사라졌다. 이름도 거창하게 바뀐 세련되고 화려한 건물이 자리 잡았다.

천구백구십칠 년 금융경제위기는 지금까지 유지되어오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이 년을 버티다가 결국에는 그동안 살고 있던 곳을 떠나 낯선 도시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생전 처음 간 곳, 이름도 생소한 그 도시에 발을 디딘 때는 큰 아이가 여섯 살 둘째가 세 살, 매서운 추위가 맹위를 떨치던 일월의 한가운데였다. 이삿짐

을 정리하는 동안 아이 둘을 데리고 놀이터에 나갔다. 낡은 미끄럼틀 하나가 전부인 그곳에는 찬바람만 빈틈없이 메우고 있었다. 아이들이 미끄럼틀을 탈 때마다 짜그랑거리는 쇠소리가 울적한 마음에 자꾸 비집고 들어와 생채기를 내는 듯 아팠다. 아이에게 들키지 않으려 코를 훌쩍이면서도 아랫입술을 뺨근하도록 깨물었지만, 눈물은 멈출 줄을 몰랐다.

이삿짐이 정리되고 낯선 도시에서의 생활은 시작되었다. 무기력과 우울감에 갇혀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던 어느 날, 외할머니의 전화를 받는 큰 아이의 대답에 정신이 펴뜩 들었다. “우리 엄마 잠꾸러기예요. 매일 누워 있어요.” 아이들은 금방 알았다. 웃음기 없는 엄마의 눈치를 보면서 그동안 보채지도 않고 견뎌낸 아이들의 마음이 안쓰러웠다. 벌떡 일어났다. 아이들을 데리고 무작정 마을 뒷산으로 향했다. 며칠 전 내린 눈이 이제 막 녹기 시작하여 햇살에 반짝이는 잔설에 눈이 부시었다. 한 달간 눈감고 지냈던 부끄러움에 힘껏 눈을 치켜떠 본다. 차갑지만 상쾌한 바람이 온몸을 휘감아 돌았다. 질척이며 드러난 아이들의 발자국 아래 언뜻 보이는 초록빛 새싹들, 봄이 오고 있었다. 오솔길을 따라 올라가니 제법 넓은 길이 나왔다. 앞서가던 아이들이 소리쳤다. 와! 개나리꽃이다. 길 양옆으로 자리 잡은 율타리에는 노란 꽃이 지천을 이루고 있었다. 아직 삼월도 오지 않았는데 우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먼 바다에서 오직 하나의 불빛에 의지해 항해하듯이 우리는 반짝이는 노란 등대를 따라 길 안으로 들어섰다. 밖에서는 전혀 보

이지 않았던 작은 건물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다. 도서관이다. 내일 이면 없어지는 신기루 같은 걸까, 왜 그 걱정이 순간 들었는지 괜스레 설레는 마음은 쉬이 진정 되지 않고 마음 따라 발걸음도 바쁘게 움직였다. 신발을 벗고 들어서는 작은 방에는 오래된 책 냄새와 낡은 건물 냄새가 났지만 싫지 않았다.

우리는 제각기 책을 골라서 중앙에 있는 탁자로 모여 앉았다. 얼마 만에 이렇게 빙 둘러 앉아서 함께 책을 읽어 보았던가 새삼 아이들 얼굴을 보며 눈을 맞추었다. 전해져 오는 아이들의 안도감과 행복한 미소는 나의 마음을 넓은 바다처럼 열어젖히고 있었다. 다음 날도 그다음 날도 우리는 아침만 먹으면 도서관으로 향했다. 가끔은 도시락을 들고 소풍처럼 도서관을 드나들었다. 큰아이는 과학 분야 책을 즐겨 읽었고, 아직 한글이 서툰 둘째는 그림책을 주로 보았다. 나는 새삼 동화책을 보면서 동화 작가에 대한 꿈을 꾸기도 했다. 거의 날마다 드나들다 보니 만나는 이웃과 자연스레 친해질 수 있었다. 아이들 친구랑 책을 통해서 본 유적지나 우리 문화유산을 찾아서 떠나기도 했다. 유네스코에 지정된 창덕궁을 보러 갔다가 인원 제한에 걸려 들어가지 못하고 아쉬운 마음에 입구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돌아왔던 일은 잊혀지지 않은 추억으로 남아 있다. 다만 읽는 데에서 거치지 않고 눈으로 확인한 덕분인지 아이들 다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 몇 년 사이 정부의 지원이 대폭 확대되면서 조그마한 도서관도 확장되고 새로운 책들이 거의 매일 들어오고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며 우리 아이들

은 도서관에서 주는 혜택을 고스란히 받고 있었다.

이 년만 살고 돌아오기로 한 처음의 약속과는 달리, 육 년을 살고 다시 원래 사는 곳으로 돌아왔다. 이사하면서 제일 고려 한 것은 집 근처의 도서관이었다. 다행히 구립도서관이 있는 근처로 이사하게 되었다. 큰 아이 육 학년, 작은 아이 삼학년 새 학기를 앞둔 달이었다. 방과 후면 다른 아이들이 학원으로 향할 때 우리는 오래된 습관 때문인지 자연스럽게 도서관으로 향했다. 주위에 시선을 돌려보면 이젠 학원에 다녀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문득 고개를 들지만, 그때마다 도서관에서 읽고 보면서 그 마음을 다스리고 있었던 것 같다.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차곡차곡 쌓인 독서의 힘은 대단했다.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왔을 때 아이의 학교 성적은 엉망이었다. 선행한 아이들을 따라가기 힘들었다고 했다. 학년이 올라가면 갈수록 잠재된 학습 능력이 밖으로 돌출되기 시작했다. 큰 아이가 중 삼이 되면서 느닷없이 과학고 가고 싶다는 마음을 내비친 것이다. 당황스러웠다. 과학고를 가려면 늦어도 초등학교 삼 학년부터 고등학교의 수학 과학 선행학습이 되어 있어야 도전해 볼 만큼 철저한 준비과정이 필요했다. 그것은 엄청난 도전이었다. 두 달간 과학 학원을 보냈다. 학원 선생님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선행 한번 다니지 않은 아이가 과학에 대한 지식이 엄청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동안 도서관에서 읽었던 책의 힘이었다.

‘그래 해보자!’ 비록 선행학습은 되어 있지 않았지만 과학을 너무나 좋아한다는 믿음이 동기 부여를 해주었다. 도서관에서 했던 과

학 프로그램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도서관을 오고 가면서 만났던 도롱뇽 등 조그마한 것도 기억하고 있는 아이는 그 시절로 돌아가 있었다. 닭 배설물에 대한 활용방안이 적혀 있어 물어보았더니 초등학교 때 도서관 가는 길에 닭 배설물이 쌓여 있어 저 속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 있을까 궁금해서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보았는데 알 길이 없었다고 했다. 그래서 과학고에 가면 꼭 닭 배설물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스스로 궁금증을 만들어 낼 줄 아는 아이로 성장해 있었다. 체험 위주의 소개서 덕분이었을까 아이의 간절한 희망은 합격의 영광을 안았다. 누구나 잠재적 능력은 있다. 우리 아이는 책을 통하여 단단하게 살을 붙이고 우뚝 서는 법을 배웠다.

나의 책 사랑 법은 그랬다. 유년시절 책이 귀했다. 내가 교과서가 아닌 처음 가져 본 동화책은 권정생의 ‘강아지 똥’이었다. 농촌 봉사 활동을 온 대학생에게서 받은 그 책은 처음부터 새 책은 아니었기에 찢어진 부분을 밥풀로 붙이고 신문지로 포장해서 언제나 옆에 끼고 있던 책이었다. 그 부족함에 대한 갈망이었을까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고가의 전집을 사 나르기 시작했다. 멋지게 짜 맞춰진 책꽂이에 반듯하게 꽂혀있는 그 책들은 장식품에 불과했다. 꽃들도 누군가 향기를 맡아주고 이름을 불러야만 그 존재의 이유가 크다. 몇 번의 손을 거치지 않고 새 책인 채로 한 장소에 머물던 그 책들은 끝끝내 빛을 보지 못하고 흩어졌다.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하지 않고 엄마의 욕심으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우리 아이에게 유년시절 만났던 작은 도서관은 수 많은 꿈을 꾸고 열어 볼 수 있는 열쇠 창고라고 했다. 여러 종류의 열쇠 꾸러미가 있다. 하나의 맞는 문을 열고 싶다. 급하게 서둘러서는 안 된다. 투박한 기억 모양의 열쇠를 훑아 보았다. 옆으로 살짝 돌아가다 멈춘다. 왜 멈춘 것일까 찬찬히 살펴보다가 다시 뻗다. 작은 구멍으로 눈을 갖다 대어 본다.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열어야만 알 수 있을 것 같다. 딱 맞는 열쇠를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야 한다. 오늘도 도서관으로 향한다. 예쁜 등대를 닮은 열쇠 하나를 들고.

평생친구

박성희 대구 수성구 청수로 (지산동)

집 정리를 하다가 아이들이 학창시절에 사용하던 교과서 꾸러미를 발견했다. 오랜 친구를 만난 것 마냥 얼굴에 웃음이 돋는다. 늘 밝은 마음으로 살라는 뜻에서 음악책을 모았고, 여자아이들인지라 참하게 살림을 꾸려 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가정책을 모았다. 학년별로 모아놓으니 꽤나 여러 권이 모였다. 세월이 내려앉아 누렇게 바랜 책을 펼쳐보았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흥얼거리던 아름다운 가곡이 흘러나왔고, 동서양의 요리며 자수 놓는 법, 가전제품의 손질법 등 지금 봐도 알토란같은 정보가 가득했다. 인터넷으로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지만 활자가 주는 편안함만 같으랴. 오래된 책이 주는 느긋함에 잠겨있자니 마음은 이미 까마득한 기억 너머에서 추억을 더듬고 있다.

책보자기와 검정고무신 세대인 우리들의 어린 시절은 너나없이 살림살이가 고만고만했다. 당장 의식주를 해결하느라 등에 콩이 튀는 집이 대부분인데 돈을 주고 책을 사본다는 것은 사치였다. 책이 귀했던 시절이라 학교에서 나눠주는 교과서가 유일한 정보망이요, 지식의 보고였다.

학년이 바뀌어 새 교과서를 받아오는 날은 가슴이 콩콩 뛰었다. 행여 책이 찢어지더라도 할 새라 책보자기를 가슴에 꼭 안고 곧장 집으로 왔다.

그날은 우리 집 잔칫날 같았다. 아버지는 정하게 붓을 다듬어 교과서 뒷장에 토박토박 반과 번호, 이름을 쓰셨다. 그 모습이 하도 진지하여 들여다보던 우리도 행여 글씨가 뺄어떨까봐 숨을 죽였다. 그 다음은 어머니 차례였다.

어머니는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비료 포대기를 깨끗이 닦아서 쪽편 후에 교과서 크기에 맞추어 잘랐다. 책과 표지가 따로 놓지 않도록 손으로 곱게 매만진 후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했다. 바늘 땀 자국이 난 것이 불만이었지만 그 덕분에 나의 교과서는 다른 아이들 것보다 훨씬 깨끗하고 보관도 용이했다. 책에 이름표를 달고, 겉옷을 입히는 행사가 끝나면 우리 가족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독서삼매경에 빠지곤 했다. 다섯 명이 각자 책 한 권을 맡아서 읽느라 밤이 깊은 줄도 몰랐다. 이웃집 닭이 해를 치며 새벽을 알리고, 방문이 희뵘하게 밝아올 때쯤에야 까무룩 새우잠에 들곤 했다. 이튿날

은 또 어제 읽었던 교과서의 독서 토론회가 이어졌다. 자연 화기에
애한 분위기에서 보물 같은 정보와 지식들이 새록새록 쌓이곤 했다.
저절로 공부가 된 셈이다. 씻은 듯이 가난하던 살림살이에서 새로
운 지식에 대한 갈급증을 해소해 준 것이 교과서였다. 교과서는 그
냥 학교에 들고 다니는 책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새로움에 눈뜨게
해 준 길라잡이였다.

이렇듯 나의 첫 책사랑은 교과서였다.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부터
는 학교 도서관에서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참 행복했다. 집에
올 때는 또 책을 빌려올 수 있어서 더욱 좋았다. 어머니가 불을 끄
고 나가면,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촛불 아래서 책을 읽다가 머리카락
을 태운 적도 있었다. 그렇게 밤을 밝히며 동서양의 대문호들을 만
났고, 고전의 향기에 빠져들었다.

가끔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거나, 세파에 찌들어 깊은 절망의 늪에
서 헤맬 때가 있다. 그럴 때도 불현듯 푸른 시절에 읽었던 책의 한
구절이 나를 끌어올리는 동아줄이 되곤 했다.

책속에 길이 있다고 굳게 믿는 나의 영향 탓인지 남편과 두 아이
들도 자연스럽게 책을 좋아한다. 내 부모님과 형제들이 서로 마음
을 다독였듯이 나 역시 새롭게 이룬 가정을 화목한 독서 토론장으로
대물림 한 셈이다. 책을 읽다보니 글 쓰고 싶은 욕구가 생겨 저절로

습작 시간도 가지게 되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책을 읽고, 또 글을 쓰다 보니 저절로 마음의 길이 열렸다. 마치 대문을 열어 둔 집처럼 소통이 쉬웠다. 가족 간의 갈등으로 골이 깊어지는 일은 거의 없었다. 책도 결국 사람이 쓴 것이라 온갖 풍상의 삶이 자연스레 녹아있기 마련이다. 등장인물들의 입장을 이해하고자 애쓰다보니 자연스럽게 마음이 순화되고, 내 삶 또한 돌아보게 되어 비빔밥이 갖은 나물과 양념이 어우러져 깊은 맛을 내듯이 더불어 사는 법을 저절로 배운 덕택이다.

자연스럽게 가족에서 이웃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이왕이면 좋아하는 책으로 보람 있는 일을 해보고 싶었다. 쇠뿔도 단김에 빼다는 마음으로 바로 독서치료사 자격증을 땀다. 공부를 하면서 동화책이나 그림책을 아이들이 보는 책쯤으로 여겼던 나의 무지가 참 부끄러웠다. 단순한 책처럼 보이는 그림책에서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해답과 교훈을 찾아가는 일이 참 신기했다. 주인공들과 눈을 맞추고, 가슴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불합리한 경제 구조로 가업이 무너지고 있다는 원망과 자괴감이 어느 샌가 붉은 녹듯 사르르 녹기 시작했다. 사업의 부진으로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맥없던 나의 모습이 비온후의 숲속처럼 푸르게 살아났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현실을 바라보는 눈과 마음이 바뀌었다. 이 소멸과 생성의 기쁨을 힘겨운 이웃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었다.

삶의 반환점을 다 돌고나서 이제는 고단한 몸으로 누워있는 어르신들이나, 영문도 모른 채 하루아침에 딴 세상으로 내몰린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들고 다가갔다. 그들의 머리맡에서 그림책을 읽어주며 내가 만났던 주인공들을 소개해 주었다. 치열했던 젊음을 내려놓고 한갓지게 하루하루를 버티던 어르신들의 주름진 얼굴에 때로는 박꽃 같은 미소가, 때로는 뜨거운 눈물이 번졌다. 젊은 시절 고아원에서 근무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찾아간 아이들은 처음엔 주춤거리며 낯을 가리다가 조심스레 다가와 안겼다. 한 권의 책이 아이들의 섬 같은 마음에 희망의 뿌리를 내리는 나무가 되길 기도하며 같이 책장을 넘겼다. 비록 명예를 얻는 일도, 대단한 일도 아니지만 한 권의 책을 통하여 체온을 나누는 일을 할 수 있어 감사하고 기쁘다. 서로 얼굴도 모르고, 자라온 세대도 다른 사람들이 책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가슴 속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다.

이제는 책이 그냥 내 몸의 일부분처럼 느껴진다. 잠잘 때도 머리맡에 읽던 책이 있고,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집어 드는 것도 책이다. 핸드백 안에도 작은 책 한 권이 있어야 허전하지 않다. 나에게 있어서 책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성실한 안내자요, 가끔 벽처럼 느껴지는 사람살이의 갑갑함을 풀어주는 숨구멍이다.

어린 시절, 뽀뽀한 새 교과서를 받아 안은 채, 풍선 같은 마음으로

들판을 달렸던 그 순수를 잊지 못한다. 내 삶의 끈을 놓는 날까지 한권의 책을 들 힘과, 돋보기를 쓰고라도 책을 읽을 수 있는 최소한의 시력이 남아있기를 소망한다. 참으로 오래된 내 평생친구, 동구 밖 느티나무처럼 푸근히 나를 안아주는 진실한 벗이기에. 낡은 책장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수많은 책들을 가만히 바라본다. 이곳에 온 시기도 다르고, 종류도 제각각이지만 모두가 귀하고 소중한 인연이라 정겹기만 하다.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분다. 이런 날은 어떤 주인공이 나를 불러낼지 자못 궁금하다.

내 안에 스며드는 것을 읽다.

염수인 대구 중구 남산로 (남산동)

“짜깁짜깁..... 짜깁짜깁.....”

잠자리에 들고 벌써 두 시간이나 훌쩍 흘렀는데 웬일인지 정신은 더 말뚱말뚱해지고 좀체 잠에 들지 못합니다. 몸은 천근만근이고 피곤하기는 이루 말할 수 없는데, 평소 같으면 베개에 머리를 대는 순간 푹아떨어지는 나인데, 내가 불면증이라니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둠에 익숙해진 눈이 열린 빛에 반사된 천장 벽지 무늬를 그렇게 두 시간 째 촘촘히 세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렇게 세월을 보낸 것이 어느덧 20년이 지났습니다. 애초부터 없는 형편에 악착같이 돈을 모아 집을 사고 차도 사고 남편 뒷바라지도 하고 아이 교육도 시킵니다. 요즘 같은 시절에 직장 안 잘리고 그래도 큰

어려움 없이 잘 버티고 있는 게 어디냐 감지덕지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생각할 이유도 겨를도 없습니다. 사치 같아서요.

그런데 최근 들어 문득문득 삶의 회의가 찾아옵니다.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다가 허무하게 늙어가고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옳은지, 당연한 것인지, 나중에 후회되지는 않을지, 그런 별별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메워 갑니다. ‘별써 갱년기인가?, 아님 우울증이 시작되려나?’ 주위에서 들리던 그렇고 그런 남의 이야기가 이젠 내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 덜컥 겁이 납니다. 이 나이에 예상치 못했던 나 자신의 변화가 그리 반갑지도 않고 오히려 두렵기만 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이후, 나만의 비밀 생각들을 함께 나눌 단짝 친구도 없고, 심지어 가족들에게는 나쁜 짓을 하다 들키는 것 같은 기분에 이야기를 꺼낼 엄두조차 못 냅니다. 그렇다고 이런 불안함과 허전함을 해결하기 위해 일탈을 하고 사고를 칠 위인도 못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사 설거지를 하고 세탁기에 빨래를 돌려놓고 베란다에 널어놓았던 마른 빨래들을 개어 집어넣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얼마 남지않은 저녁 시간의 휴식을 못내 아쉬워하며 자연스럽게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고 있었겠지만 그날은 어쩐 일인지 멍하게 앉아 텔레비전 너머 킁킁한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러다 거실 창문 옆 책장 한 칸에 꽂혀 있던 안도현의 시집이 눈에 들어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밟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어린 시절 가슴 벅차게 하던 시인의 그 예리한 시구가 다시 한번 가슴 깊이 파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며칠 텔레비전이 꺼진 적막한 저녁 거실의 변화를 뒤늦게 감지한 무딘 남편이 슬며시 옆에 와서 앉습니다. “뭐 읽어?”, “혹시 이 시 읽어 봤어요? 선입견 가지지 말고 한 번 읽어봐요.”, “시야?” 한참을 장난스레 품을 잡고 낭송하듯 읽던 남편의 시낭송이 마지막 연에 가서 멈추었습니다. 살며시 떨리는 것이 느껴지고 어느새 눈가에 습기가 축축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그죠, 은비 아빠?”, “어휴, 이제 간장게장 못 먹겠다.” 한참 만에 호흡을 가다듬은 남편이 재치 있게 둘러댄 첫 마디였습니다.

‘스며드는 것’, 당연히 만물의 영장, 인간의 맛난 별미로 사랑받는 간장게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시인의 기발한 상상력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본능적으로 알과 새끼를 보호하려 했던 한 미물의 안쓰러운 모성애를 그렇게 숭고하게 인간의 마음으로 승화시켰나 봅니다. 마치 아무 것도 모른 채 엄마와 함께 나치 수용소의 가스실에서 마지막을 맞이해야 했던 어린 아이에게 들려주는 엄마의 마지막 자장가를 듣는 것처럼 시인의 마지막 연은 우리 부부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엄마는 얼마나 두렵고 미안했을까요? 끝까지 지켜줄 수 없었던 자신의 아이에게.....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어느 누구라도 절대 외면할 수 없을 그 마지막 사랑과 배려의 한 마디에 가슴 속 깊은 곳 답답하게 막혀 있었던 구멍이 뿡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엔 너무나도 달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전날 밤의 감흥과 여운이 채 가지지 않은 이른 아침, 어느 때처럼 아침 식사와 출근 준비로 정신이 없어야 할 때지만 처음 얼굴을 마주대한 남편에게 느닷없이 생각지도 않았던 말이 나옵니다. “은비 아빠, 거실에 놓을 긴 앉은뱅이 나무 책상 하나 사주면 안돼요?” “아, 당신이 예전에 말했던 거? 알았어요. 내 한 번 알아볼게.” 결혼 할 때부터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것이었는데, 그리고 가격이 제법 비싸서 안사고 지났던 것이었는데, 그렇게 잇고 20년을 살았던 것이었는데, 그게 왜 갑자기 생각이 났을까요? 느닷없이 이 바쁜 아침에 말이죠.

“응, 알았어. 한 번 알아볼게.” 이야기해도 비용이 제법 드는 것 장만은 보통 뜬눈을 뜨고 시장 조사를 하며 오래오래 알아보거나, 아니면 구렁이 담 넘어 가듯 은근슬쩍 넘어가기 일쑤여서 그러려니 하고 잇고 있었는데요. 저녁에 퇴근해 와보니 거실 가운데 덩그러니 원목으로 된 긴 나무 앉은뱅이책상이 놓여 있는 게 아니겠어요? “중고로 하나 샀어.” 남편이 거실에서 청소기를 돌리며 이야기 합니다.

여기저기 세월의 흔적을 안고, 어린 아이들이 있는 집에 있는 듯 스티커가 붙어 있는 등 사용감이 없지 않았지만, 욕실에서 한참동안 목은 때를 벗겨내고 난 책상은 제법 우리 거실의 색상이나 분위기에 어울렸습니다. 돈이 모자라 집 사서 들어올 때 실내 인테리어를 하지 못하고 이전 주인이 했던 마루며 몰딩이며 그대로 사용하던 집의 오래된 나뭇결이 오늘 새로 합류한 앉은뱅이 나무 책상의 그것과 딱 맞게 낡아 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우리 집에 있어야 할 것이 오랜 시

간, 그렇게 20년 동안 돌고 돌아서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그 때부터 우리 집 저녁 시간은 당연히 켜져 있는 텔레비전 대신 긴 나무 앉은뱅이책상에 둘러앉아 세 식구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고 허무한 세월과 역사를 마치 한 순간에 정지시키고 매일 밤 영원을 만끽하면서 말입니다. 언제 다시 찾아올는지 알 수 없지만 갱년기의 우울증도, 상실감과 불면증도 이렇게 한 동안은 책 속의 친구들과 다시 찾은 가족들로 인해 잠시 보류시켜 둘 수 있을 듯 합니다. 몸이 노쇠해가는 자연 현상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매일 밤 영원을 품어내는 나와 가족의 마음은, 정신은, 슬픔과 고통의 호르몬조차 감동과 희망의 호르몬으로 바뀌어 놓은 듯 합니다. 고즈넉한 저녁 시간의 침묵을 깨며 간간이 오가는 편안한 이야기 나눔까지 애초부터 우리 삶과 독서의 일부인양 그렇게 자연스럽게 삶과 가족을 회복해 갑니다. 요즘 유행하고 회자되는 ‘저녁이 있는 삶’은 저녁 시간의 물리적인 양을 확보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것이 있는 ‘대화가 있는 삶’이 아닐까요? 아마도 거기에는 함께 읽는 책이 꼭 있어야 제대로 어울릴 것 같습니다.

책 밥상을 차리다.

이경화 광주 광산구 장덕로 (장덕동)

“아빠, 책 읽어 주세요!”

막내딸이 동화책을 들고 컴퓨터 앞에 앉아 게임에 빠져 있는 남편에게 기함하게 부탁한다. 남편은 막내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엄마한테 읽어주라고 해.’ 라고 고압적인 어투로 얘기한다. 막내딸은 집안일에 정신이 없는 내 눈치를 살피다 풀죽은 모습으로 눈적는 적 제 방으로 돌아간다.

“여보! 게임 좀 그만하고 막내 동화책 좀 읽어줘요.”

남편은 내 말에 콧방귀도 끼지 않는다.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르지 만, 남편의 분탕질이 걱정돼 화를 삭인다. 청소를 잠시 멈추고 큰아이 방을 찾는다. 큰아이는 숙제를 하다 말고 스마트폰 게임에 푹 빠져 있다. 큰아이를 향해 스마트폰 게임 그만하고 숙제하라고 소리 쳐도 큰아이는 대답조차 없다. 정말 그 아비에 그 아들이라더니, 어

찌 이리 똑같을 수 있단 말인가. 나도 모르게 깊은 한숨이 새어 나온다. 막내는 동화책을 책상 위에 던져 놓고는 거실로 나와 TV시청을 한다. 7살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프로그램에 정신 줄을 놓고 빠져 든다. 막내에게 동화책 읽어줄 테니 가져 오라 해도 TV에 푹 빠져 대답조차 하지 않는다. 순간 화가 치밀어 남편을 향해, 아이들을 향해 소리를 버럭 지른다. 그제야 남편과 아이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제 방으로 돌아간다. 난 소파에 앉아 화를 식이며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다. 정말이지, 아내로서 엄마로서 사는 것이 너무 힘이 든다.

인터넷과 미디어, 그리고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인해 책을 멀리하는 시대가 되었다. 한창 공부중인 학생들조차 책을 학교에서 공부할 하기 위에 보는 것쯤으로 여기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 인터넷과 미디어, 그리고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인한 순기능이 많지만, 그에 못지않게 역기능 역시 많은 게 사실이다.

아이들이 책을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집안에 책을 쌓아놓다시피 했지만, 아이들은 전혀 책을 읽으려들지 않았다. 아직 한글을 채 깨우치지 못한 막내마저 책을 멀리하다보니 언어습득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상태이다. 아이들이 책을 가까이할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키가 자라고 머리가 자라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접하기 시작하면서 더욱 책을 멀리하기 시작했다. 거리에 나가보면 곳곳에서 영업하는 PC방 역시 아이들이 책을 멀리하게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남편 역시 책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학창시절 작가를 꿈꾸던 남편은 습작을 위해 수없이 많은 책을 읽었다. 그러나 신춘문예에 빈번히 낙방하면서 남편은 작가의 꿈을 접었고, 그로부터 책을 멀리하기 시작했다. 은행원으로서의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 보니 남편은 자기계발에도 소홀히 하며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식사를 마치고 무섭게 컴퓨터 앞에 앉아 게임에 정신을 놓기 시작했다. 그러다보니 아이들 역시 책을 멀리하고 숙제마저도 소홀히 하며 온갖 미디어와 게임에 폭 빠져 지내곤 했다. 이러한 저녁풍경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지만, 모두 허사로 돌아가곤 했다.

큰아이의 담임선생님으로부터 갑작스런 연락을 받고 회사 조퇴 후 사뭇 긴장된 표정으로 학교를 방문했다. 큰아이가 혹 사고를 친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다름 아닌 큰아이의 학업성적 때문에 면담을 신청하신 것이었다. 큰아이의 학업성적은 말이 아니었다. 유급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다. 담임선생님과 면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큰아이 유급 이야기를 전하려다 하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커피 한 잔 마시다 밀려든 피곤 때문에 소파에 기대어 쪽잠에 든 사이 꿈을 꾸었다. 꿈에 친정아버지의 모습이 등장했다. 신문사 기자이셨던 친정아버지는 독서광이었다. 뿐만 아니라 3남매에게도 책을 가까이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셨다. 학창 시절, 저녁 식사 후 온 가족이 거실 탁자에 앉아 책을 읽던 모습이 꿈속에 그려지는 것이었다. 친정아버지의 지도아래 책을 읽은 3남매의 모습이 그리 행복해 보일 수가 없었다. 쪽잠에서 깬 후 한동안 소파에

앉아 꿈속에 그려진 모습을 반추하던 중 난 내 무릎을 강하게 내리 치며 ‘그거다.’ 라고 소리쳤다.

그날 밤, 난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두 개의 밥상을 차렸다. 하나는 식탁에 차린 저녁 밥상이었고, 또 하나는 거실 탁자에 차린 책 밥상이었다. 남편과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정성껏 저녁밥상을 차린 후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책 밥상 역시 정성껏 차린 것이었다.

저녁 식사 후, 남편은 어김없이 발길을 컴퓨터로 옮기려 했다. 난 서둘러 남편을 붙잡아 거실 탁자 앞에 앉게 했다. 남편은 왜 그러느냐고 툭툭거렸다. 아이들을 역시 탁자에 앉게 했다.

“자, 오늘부터 저녁식사 후 책상에 앉아 책을 읽을 거야. 할당된 책을 다 읽을 때까지 절대 자리에서 일어서면 안 돼!”

“당신, 뭐 잘 못 먹었어? 책 밥상이라니, 무슨 똥판지야!”

남편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날 깔떠보며 툭툭거렸다. 아이들 역시 프악한 표정으로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특히 큰아이는 게임하고 싶다고 난리를 피웠다. 그와는 달리 막내아이는 기대에 찬 표정으로 날 올려다보았다.

“책 읽으라고 강요는 하지 않겠어. 하지만 책 밥상을 거부하고 책을 읽지 않으면 용돈도 주지 않을 거며, 빨래도 해주지 않을 거며, 밥도 차려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 알아서들 해.”

그제야 남편도, 큰아들도 더 이상 툭툭거리지 않고 할당된 책을 마지못해 읽기 시작했다. 남편은 책과 컴퓨터를 갈마보며 금단현상을 보였다. 그럴 만도 할 것이 그토록 좋아하는 컴퓨터 게임을 못하게

했으니, 얼마나 힘이 들겠는가.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아이들에게 책을 가까이해 주기 위해선 부모로서 희생해야 하는 거 아니겠는가. 큰아이 역시 책을 읽다 말고 힘들다고 투덜거렸다. 그럴 때마다 용돈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하거나, 스마트폰을 빼앗겠다고 협박하여 할당된 책을 어떻게든 다 읽게 했다. 아직 한글을 완전히 깨우치지 않은 막내아이는 나의 도움을 받아 할당된 책을 다 읽었다.

할당된 책을 다 읽기까지 한 시간 가량 시간이 걸렸다. 책을 읽고 나니 아이들이 잠을 청해야 하는 시각이 된 것이었다. 큰아이는 세면 후 10분 정도 스마트폰 게임을 하다 잠이 들었고, 막내아이는 곧장 잠이 들었다. 책을 읽고 잠이 든 아이들이 그리 어여쁠 수 없었다.

“당신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뜬금없이 무슨 책 밥상이야?”

남편이 저어한 표정으로 내게 고시랑거렸다.

“오늘 상우 담임선생님 만나고 왔어요.”

“상우 담임선생님? 왜?”

“유급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유급? 상우가 유급해야 한다고?”

큰아이 유급 얘기에 남편이 발끈한다.

“상우가 받아쓰기가 다른 아이보다 현저하게 뒤쳐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책을 많이 읽게 해달라고 요청하셨어요.”

남편은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주억거렸다.

“그러니 당신도 게임 그만하고 아이들한테 신경 좀 써요. 매일 저녁 아이들을 위해 책 밥상 차릴 테니 당신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요.

알았어요?”

남편은 대답대신 고개를 주억거렸다. 그리고 큰아이 방을 찾아 잠든 큰아이의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다 컴퓨터 앞으로 가지 않고 안방으로 돌아왔다.

책 밥상을 차리기 시작한지 어느덧 일 년의 세월이 흘렀다. 지난 일 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책 밥상을 차렸다. 남편의 입맛에 맞는 책을 고르고, 아이들의 입맛에 맞는 책을 고르는 것이 그리 행복할 수가 없었다. 과거 책 읽는 3남매의 모습을 지켜보며 행복해하시던 친정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매주 주말이면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서점을 찾아 책을 구입하는 것 역시 내겐 큰 행복이다. 받아쓰기 능력과 학업성적이 난삽해 유급 위기에 처했던 큰아이는 받아쓰기 능력과 학업성적이 놀라울 정도로 회복이 되어 더 이상 유급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집중력이 좋아지고 공부에 흥미를 갖기 시작했다. 작은아이는 엄청난 독서로 인하여 어느 아이들 보다 언어구사능력이 월등히 뛰어났다. 작은아이는 좀 귀찮을 정도로 더 많은 책을 사 달라 재재거리곤 한다. 과거 문학도를 꿈꿨던 남편은 문학책을 섭렵하며 문학작품을 쓰기 시작했다. 비록 삼삼하지 않지만, 남편이 써놓은 문학작품 읽는 것 또한 내겐 큰 행복이 아닐 수 없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점을 찾는다. 어젯밤 큰아이가 부

탁한 책을 구입하기 위해서다. 서점을 찾은 김에 작은아이가 읽을 만한 책을 구입한다. 그리고 남편이 읽을 만한 시집도 몇 권 구입한다.

오늘은 책 밥상 메뉴를 무엇으로 할까?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내 머릿속은 오로지 책 밥상 생각뿐이다.

말하는 책두꺼비

황채민 대구 북구 내곡로 (사수동)

두꺼비는 습기가 많고 그늘진 곳에서 서식한다. 피부에 오돌토돌한 돌기가 많이 나있고 파리나 모기 등을 잡아먹는다. 그런데 좀 이상한 두꺼비가 있다. 생김새부터 이상하다. 양쪽으로 눈이 뿔룩 튀어나와있고 앞다리와 뒷다리에 오돌오돌한 종기가 잔뜩 나 있는 것이 두꺼비가 틀림없는데 정작 울퉁불퉁해야 할 등은 평평하고 납작하다. 또 입은 무지막지하게 크다. 두꺼비가 입을 아주 크게 짝 벌리자 긴 혀바닥 대신 입 안 가득히 찬 까만 글자들이 눈에 들어온다. 파리는 안 잡아먹고 까만 글자들만 엄청 잡아먹었나 보다. 이상하게 생긴 이 두꺼비는 바로 ‘말하는 책두꺼비’이다. 똥단지같은 소리겠지만 ‘말하는 책두꺼비’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 이제는 새댁이 된 나를 찾아온 요상한 두꺼비다. 이 ‘요상한 두꺼비’가 나를 어떻게 알고 찾아왔냐 하면 먼저 주부가 된 내 얘기를 하고 싶다.

주부가 되니 엄마가 해주시던 밥도 직접 해야 하고 청소나 빨래, 공과금을 내는 것도 다 직접 하면서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야 했다. 나는 엄마처럼 주부9단 내공은 못 가지더라도 주부3단 정도는 해볼 심산으로 나름 애쓰지만 아직은 살림이 좀 서툴다 보니 실수도 많고 우왕좌왕하기도 한다. 또 결혼과 동시에 새로 생긴 나의 역할들이 때때로 부담스럽고 무겁게 느껴져서 벌써부터 처녀시절을 그리워하기도 했다. 남편은 서툴지만 노력하는 내 모습이 가상해보였는지 나를 타박 한번 않고 늘 괜찮다 잘한다 해주니 참 고맙다. 이런 고마운 남편과 함께 손을 잡고 종종 길을 걷는다. 선선한 바람에 싱그러운 풀냄새가 실려 오는 길, 가고 싶은 길을 걷는다. 인생에도 여러 갈래의 길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갈지 우리 삶의 지도를 같이 그려본다. 하지만 우리가 그려놓은 지도대로 길이 참 쉽게 나지는 않는다. 이제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더 많은 추억을 만들 줄 알았는데 남편은 매일 야근에 주말출근도 잦고 오랜만에 맞이하는 온전한 주말은 양쪽 집안일이나 행사에 주로 반납하니 주말 데이트는 고사하고 평일에 남편과 저녁 한 끼 먹기도 힘들었다. 피곤에 지쳐 정신 없이 잠에 폴아떨어지는 남편을 보면 안쓰럽기도 했다.

남편과의 '행복한 삶'에 대한 고민이 많아졌다. 야근을 당연하게 여기는 조직문화에 화가 나고 터무니없이 비싼 집값에 힘이 빠졌다. 부모님의 기대나 요구도 때로는 불편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이라 느껴지니 가슴이 답답했다.

'행복'에 대한 고민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행복하지 않

은 이유에, 부모님이 살아온 방식에, 방황하는 청춘에, 세대 간의 갈등에 물음표를 붙이게 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찾고 싶어서 또 갈등을 해소하고 싶어서 행복하고 싶어서 마음의 열병을 앓았다. 내 영혼은 마음속에서 가장 습기가 많고 그늘진 곳에 가 웅크렸다. 그리고 그 곳으로 뜻밖에도 ‘말하는 책두꺼비’가 나를 찾아왔다.

‘말하는 책두꺼비’는 어릴 적 내 소망에서 태어났다. 막 한글을 떼을 무렵부터 세계명작동화나 전래동화를 참 많이 읽었다. 당시에 우리 부모님도 여느 부모님과 다를 바 없이 전집으로 곧잘 책을 사주셨다. 나는 전집에 포함된 테이프를 틀어놓고선 실감나는 성우의 목소리를 따라가며 책 보는 것을 좋아했다. 동화 속 세상은 그야말로 별천지였고 환상의 세계였다. 바다 속에는 인어공주가 살고 숲 속에는 과자로 만든 집이 있고 두꺼비는 말을 하는 그런 세상. 내 머릿속 세상에선 끝도 없이 펼쳐진 저 먼 바다의 해저에 인어공주가 유유히 헤엄치며 살고 있었다. 나에게도 두꺼비가 찾아와 말을 걸지 않을까? 숲 속 어딘가에서 마녀의 오두막을 발견하지 않을까? 어린 마음에 책을 읽을 때마다 꾸던 꿈은 나이가 들면서 툭 건드리는 순간 터져버리고 마는 비눗방울처럼 아련한 추억이 되었다. 아니, 그렇게 생각했다. 동화 속 세계에서만 존재하는 줄 알았던 ‘말하는 두꺼비’가 정말로 나를 찾아왔다. 등이 납작하고 입안에는 까만 글자가 가득한 ‘책두꺼비’가.

‘책두꺼비’는 웅크리고 있던 나에게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말했고, 혜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을 말했고, J.D.셀링

저의 ‘호밀밭의 파수꾼’을 말했고,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를 말했고, 때로는 조앤 롤링의 ‘해리포터 시리즈’를 말했다. ‘깨달음’과 ‘위로’와 ‘이상과 현실사이에서의 고뇌’와 ‘상상의 힘’을 얻었고 때로는 ‘재미’도 얻었다. 내 영혼이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으로 고통에 시달릴 때 ‘책두꺼비’는 내 자신을 찬찬히 바라보며 스스로를 사랑하는 계끔 조언해 주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스스로가 만들어놓은 틀에 갇혀서 다른 곳을 보지 못할 때 ‘책두꺼비’는 내가 알지 못했던 다른 세상을 보여주었고 또 다른 가치와 의미에 눈을 뜨게 해주었다. 내가 겪어보지 못한 시대의 삶은 어떠했는지 내가 만나보지 못한 인물의 삶은 어떠했는지 앞으로 다가올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궁금하고 호기심이 생길 때 ‘책두꺼비’는 시간과 차원을 거스르는 소통창구가 되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었다.

책 속에는 오랜 시간 수많은 사람들이 했던 고민들이 담겨있고 가지에 가지를 치는 생각들이 끝없이 뻗어나가 있다. 생각은 다시 생각을 낳고 그동안 당연시 되어왔던 것들에 대해 근원적인 물음을 끊임없이 던진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방향을 수정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변화를 일으킨다.

‘말하는 책두꺼비’가 해답을 주는 것도, 갈증을 온전히 해소시켜주는 것도,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을 잡아먹는 벌레들을 잡아먹으며 내 마음 속 가장 습기가 많고 그늘진 곳에서 파수꾼으로 그 임무를 충실히 다하고 있다.

나는 여전히 행복에 대한 고민을 한다. ‘말하는 책두꺼비’가 또 내게 팔딱팔딱 뛰어오는 것이 보인다.

심포 하나!

강성화 경기 고양시 덕양구 총장로 (행신동)

아마 평생 도서관을 졸업하지 못할 것 같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활기 넘치는 그곳이 난 좋다. 현실에서 잊고 지낸 꿈, 열정 등이 그곳에 가면 하나씩 생각난다. 도서관에 가기 전과 가고 난 후 나의 모습은 다르다. 두 아이의 엄마로 아이들에게 툭툭거리다가도 책을 빌리고 나오는 순간 아이들과 나 자신에게 유해진다. 그리고 생활에 잠시나마 활력도 넘친다. 결혼하기 전에는 아이를 키우는 친구들과 연락이 멀어지는 것은 아이를 둔 엄마들의 유별남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 연락을 주고받는 것도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이와 같은 또래 엄마들과는 연락하는 횟수 - 육아 고민 상담을 하거나, '키즈카페' 같은 곳에서 만남을 약속하거나, 저녁 반찬 이야기 등 일상적인 대화 - 가 많아졌다. 결혼을 안 한 친구들과는

공통 관심사가 달라졌다. 그리고 그들은 나와는 다르게 자신에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들은 3년에서 4년은 자신보다는 아이 중심의 삶을 사는 것 같다. 가끔 친구들이 그리워질 때면 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책을 본다. 책에서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인물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내가 그 상황이면 어찌해야 하는지 고민해 보기도 한다.

약 15년 전 대학교 4학년 여름 방학 때 ‘평생교육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 한 달 동안 도서관에 실습을 간 적이 있다. 그곳에서 내가 한 일은 ‘북 카트’에 가득 담긴 책들을 분류번호에 맞게 정리하고 책 상태를 살피는 것이었다. 훼손된 책은 테이프를 붙이거나 지우개로 지웠다. 실습하기 전에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빌린 책에 대한 태도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내 것이 아닌 것은 더 소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실습 중에 잠시 여유가 생기면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날짜별로 철한 신문을 읽기도 하고 평상시에는 잘 읽지 못했던 다양한 책을 접하기도 했다. 이때 도서관 실습은 내 삶에 주어진 하나의 휴가였다. 대학교 4년 동안 학과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앞만 보고 살았다. 그런 나에게 도서관에서 실습하는 한 달은 ‘그동안 수고 많았다. 잠시 쉬었다 가렴.’이라는 의미의 값진 시간이었다.

지금도 도서관에 가면 실습할 때 느꼈던 기억과 경험이 많이 생각난다. 결혼하고 엄마가 되면서 도서관을 졸업할 줄 알았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쌍둥이 유모차를 끌고 2주에 한 번씩 도서관으로 출

근하고 있다.

처녀 때와는 다르게 도서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다. 엄마가 되기 전에는 빌린 책을 다 읽고 반납했지만, 지금은 시간에 허덕이면서 책을 읽고 있다. 그것도 다 읽지 못하고 반납해야 하는 날이 더 많다. 그래서 책을 반납하는 날은 마음이 무겁다. 첫째만 있을 때는 새벽에도 일어나서 책을 읽고 사색의 시간도 가지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둘째가 생기고 나서는 책 한 권을 주어진 2주 안에 읽기는 버거웠다. 일주일을 더 연장하고도 그 시간 안에 책을 다 읽지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아이를 키우면서 책 한 권을 정독하는 것은 사치인가보다.

책을 고를 때 관심 주제도 달라졌다. 결혼 전에는 사랑이라든지 꿈을 이루는 내용, 여행에 관련된 내용 등의 책을 선택해서 읽었다. 하지만 지금은 육아 상식 또는 가족의 건강에 신경을 쓸 수 있는 내용으로 관심이 바뀌었다.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인다.’는 말처럼 처음에는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서 책을 읽었다. 동물을 키우거나 화분 키우기에도 관심 없던 나에게 아이가 생겨서 처음에는 겁도 많이 났다. 서른 살 중반까지 혼자 잘난 맛에 산 나에게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꾸리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친정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커지고 육아의 버거움이 커질 때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렸다. 처음에는 책에 적혀 있는 육아 상식을 읽고 도움을 많이 받았다. 책 덕분에 부족함이 많았던 내가 엄마와 아내의 모습으로 안정되어 갔다.

처음 육아 서적을 읽었을 때는 모르던 세계에 대한 궁금증과 아이

를 키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 참 잘하고 싶었지만 모르는 것도 한 많았다. 그래서 책을 읽고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큰 아이에게 미안한 부분이 많다. 물론 둘째에게도 미안한 부분이 많다. 하지만 첫째에게 사랑만 주기도 아까운데 처음이라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는지 몰랐다. 사랑하는 마음을 다 표현하면 아이가 너무 버릇이 없어질까 봐 정말 어린 딸에게 혼도 많이 냈다. 나는 아이에게 감정표현이 서툴렀다. 그리고 어설픈게 읽은 책들로 엄마가 된 나는 아이를 사랑의 눈보다는 감독관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엄마에게 “안 돼.” 라는 말을 많이 들었던 큰딸은 요즘 엄마 대신 동생에게 “안 돼.”라고 말을 하고 있다. 참 신기한 것이 어느 경우에 쓰는 말인지 설명을 따로 안 해줬는데 그런 상황이 오면 아이가 정확하게 그 단어를 사용하고 행동을 한다.

아이를 키우면서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이라 너무 여유 없이 앞만 보고 왔나 보다. 둘째가 생기고 큰 아이가 동생에게 하는 행동을 보니 내가 그동안 큰 아이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 수 있었다. 나의 문제는 책을 읽기만 바빴다. 즉 책 속의 내용을 습득만 했지 내가 아이에게 나만의 방법으로 다가가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난 훌륭하다. 잘하고 있다. 아이 키우면서 바쁜 와중에 책까지 읽고 난 좋은 엄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 자신이 꽤 괜찮은 줄 알았다.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놓인다. 특히 아이 키울 때 정답이 없는 선택의 순간이 매 순간 펼쳐지고 있다. 아직은 미성숙한 아이를 대신해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엄마인 나의

부담감은 엄청 커진다. 미성숙한 내가 무엇인가를 대신 선택해 주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기준치가 필요했던 것 같다. 나 자신의 독단적인 선택이 아닌 책을 읽고 쌓인 여러 가지 간접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더 나은 선택을 하고 있다는 확인이 필요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동안 없는 시간을 쪼개면서 책을 읽고 나와 큰딸에게 강요만 했던 것 같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아마 처음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이 했을 것이다. 큰딸에게 미안한 감정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순간 그게 최선이었고 그 속에서 사랑을 많이 주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여유를 가지려고 책을 읽고 있다. 책의 내용과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을 추릴 수도 있다. 예전에는 책에 있는 내용을 다 해야지만 좋은 엄마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의 성향이 다 다르듯 부모의 성향도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요즘에는 책을 읽을 때 주인공과 나는 다름을 인정하고 읽으니 마음이 편하다. 책의 내용에서 또 다른 나의 모습을 찾고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발견하는 것 자체가 대견하다. 도서관에 가서 새로운 책을 빌려오면 설렌다. 내가 그동안 잘못했던 행동들을 고칠 수 있을 거라는 작은 희망이 있고, 더 나은 어머니 아내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를 키우면서 첫째에 대해 잘못된 것도 반성하게 되고 나 자신에게 여유를 찾아가고 있다. 지금도 매 순간 “힘들다. 힘들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책을 읽고 한 박자 쉬어가 는 느낌도 많이 받고 있다. 부족함이 많은 내가 바쁜 육아 중에 틈틈

이 읽은 책들로 조금씩 나아진 모습으로 바뀌고 있으니 너무 감사하다. 이제는 책을 읽으면서 완벽함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찾고 있다. 그래서 내가 도서관과 책을 끊을 수 없다. 대학교 때 앞만 보던 나에게 짐을 준 것처럼 육아에 지친 나를 다독여 주고 마음의 여유를 주고 있는 책을 빌려왔다는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놓인다. 앞으로 나를 더 여유 있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책을 읽으면서 노력할 것이다.

|가작

책은 우리가족 수호천사

권미옥 경기 부천시 성주로 (심곡본동)

첫아이를 낳은 지 한 달도 안 되어 남편은 중국으로 일자리를 구해 떠났다. 우두커니 남겨진 아들과 나는 무료하고 외로운 생활이 계속 되었다. 나는 산후우울증과 육아에 힘겨워서 한참 눈 맞추고 놀아줘야 할 아이와 놀아주지 못하고 언제나 지쳐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영금영금 기어 다니던 아들이 책꽂이에서 동화책 한 권을 꺼내 힘겹게 끌고 와서 내 곁에 놓으며 손가락으로 책을 가리키며 웅알웅알 재잘댔다. 아들과 나의 책 읽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초롱초롱한 눈을 반짝이며 얌전히 앉아서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듣는 아이를 보면서 내 마음도 활짝 열리는 것 같았다.

아이 키만큼 많은 책을 매일매일 읽으며 아이는 자랐고, 그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며 나도 동화책의 재미에 흠뻑 빠져들게 되었다. 외국의 경우 할머니들도 동화책을 즐겨 읽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이 있다. 동화책은 세상에서 가장 쉽고 따뜻한 말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어른들의 마음이 담겨있어서일 것이다.

아장아장 걷는 아이의 손을 잡고 가까운 도서관에 들러 책을 읽는 일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과였고 또 그곳에서 비슷한 또래를 만나 서로 어울리고 소통하기도 하면서 형제가 없는 우리 아이에겐 참 뜻깊은 시간이었다. 그러나 한참 아빠와 함께 뛰어 놀고 뒹굴며 아빠를 느끼고 마음속에 담아가야 할 남자아이에게 아빠의 부재는 많은 어려움을 가져왔다. 놀이터에서 아빠와 신나게 뛰어노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는 날에는 부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의기소침해졌다. 고심 끝에 도서관을 찾아서 아빠와 관련된 책을 빌려서 아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아이에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음속으로는 아이가 아빠와 함께 하지는 못해도 아빠가 계시다는 것만으로 감사하기를 바라면서. 그러던 어느 날 아이는 문득 내게 이런 말을 했다.

“엄마, 기다리는 건 좋은 거지.”

“그럼, 기다리는 건 마음먹기에 따라 행복한 일일 수 있어.”

“나도 행복한 마음으로 아빠 기다릴래.”

그 일을 계기로 아이는 아빠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졌다. 그런데 불현듯 그런 의문이 들었다. 나에게도 남편을 기다리는 일이 행복한 일일까? 그동안 입 밖으로 말하지 않았을 뿐 내 마음도 몹시 고단해 있었다. 나에게도 위로가 필요한 순간이 온 것이다. 그래서 학창시절 즐겨 읽었던 시가 생각이 났고, 시집을 찾아

읽기 시작했다. 우연히 김남조 시인의 ‘서시’, “가고 오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더 기다려 줍시다./더 많이 사랑했다고 부끄러워 할 것은 없습니다./부디 먼저 사랑하고/많이 사랑하고/더 나중까지 지켜주는 이 됩시다.”를 읽고 조용히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내부로부터 새로운 힘이 솟아났다. 책은 우리 가족에게 아빠가 가르쳐주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고 남편의 빈자리를 씩씩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었다.

아이가 혼자서 책을 읽게 되면서 아이와 나는 거실 한켠에 있는 책상에 마주 앉아 각자의 책을 읽었다. 그러다가 아이가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보여줄 때면 함께 읽으며 웃고 떠들었다.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서 같은 책을 함께 읽기는 어려워졌다. 나는 반도 읽지 못했는데 아이는 책장을 넘기려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다 읽어야지, 대충 보면 반칙이야.” 하자 아이는 “다 읽었어, 의심스러우면 문제 내봐.” 신기하게도 아이는 내가 물어본 책 내용을 사소한 것 까지 알고 있었다. 스스로 속독하는 법을 터득한 모양이었다. 다독의 힘인 것 같았다.

그 이후로도 아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거나 궁금한 것이 있을 때, 관심 있어 하는 것이 생길 때 그리고 엄마로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때면 관련도서를 찾아서 아이 책상에 놓아 주었다. 가끔은 책에 밑줄을 그어서 엄마의 사랑을 표현하기도 했다. 그 덕분에 인지 아이는 생각이 깊은 아이로 자라주었다. 따로 글쓰기를 가르친 적이 없었는데도 교내외 글짓기대회에서 여러 차례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다른 사람의 글을 통해 아이는 자기만의 글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중학생 때는 우리 동네 도서관에서 매월 추천하는 청소년 추천도서를 주로 읽었다. 다양한 방면의 지식과 지혜를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 동안에 읽었던 책들은 학교 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국어, 사회, 도덕, 역사 같은 과목은 별도로 공부를 하지 않아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따로 책을 읽을 시간이 많지 않지만 방학 때면 영어로 된 외국의 청소년문학상 수상작품을 원서로 읽으며 사고의 폭을 넓히고 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아이와 함께 읽었던 수많은 동화책을 통해 나는 동화작가를 꿈꾸고 있다.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에게도 책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을 전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에서 독서지도를 하게 되면서 누군가의 보살핌이 절실하고 상처가 많은 아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이야기를 쓰고 싶어졌다. 책을 통해 우리 가족이 받은 은혜를 이 땅의 아이들에게 돌려주고 싶다.

우리 아이는 책을 먹고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나 또한 책속에서 위로와 평안을 되찾고 살아갈 새 힘을 얻었다. 책은 우리 가족을 지켜준 고마운 수호천사다. 햇별이 드는 양지 녘에 앉아 국화차 한 잔에 시집을 읽으며 생각해 본다. 책이 있는 한 우리 가족은 그 속에서 늘 행복할 것이다.

|가작

독서와 아날로그식 효도

김양희 경기 안산시 상록구 반석로 (본오동)

어느 날 언니가 급하게 전화를 해 왔다. 엄마가 강릉00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서울의 큰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 보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래도 나는 별일 없을 것이라고 억지로 가슴을 진정시키며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다.

서울00병원에서 검진 결과, 췌장암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나는 “하늘이 노래진다.”는 표현의 의미를 그제야 깨달을 수 있었다. 평생 자녀들 위해 헌신하신 엄마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

현실은 냉정했다. 현실은 나에게 단 한번도 상의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질주를 계속했다. 췌장암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을 거쳐, 일반 병실로 옮겨져 누워 계신 엄마를 보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그제야 내가 얼마나 무심한 딸이었는지, 과거의 무심한 기

억들이 주마등(走馬燈)처럼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다.

결혼을 늦게 하는 바람에 나에게는 초등학교 3학년 딸 쌍둥이가 있었다. 남편과 의논해 아이들을 시부모님께 맡기기로 했다. 결국 나는 친정엄마를 돌보기 위해 시부모님께 불효를 저지르게 되었다. 남편은 시부모님과 살림을 합치고 출퇴근을 하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나는 병원에서 간병인(看病人) 역할을 자처했다.

암(癌)중에 가장 나쁜 암이라는 췌장암은 5년 내 생존율이 가장 낮은 치료가 어려운 암이다. 암 환자를 둔 사람은 누구나 알겠지만 암 환자를 간병하는 일은 특히, 췌장암과 같은 치료가 어려운 암을 앓는 환자를 간병하는 일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다. 나는 그동안 엄마에게 불효한 일이 계속 떠올랐다. 부모님의 반대를 뿌리치고 행한 수많은 일들, 부모님과 떨어져 서울에서 보낸 시간들, 사는 게 바빠 자주 연락드리지 못한 일들, 기타 등등 수많은 기억들이 나의 가슴을 샌드백(Sandbag)마냥 수시로 두드리기 시작했다.

6개월 가량의 입원치료는 환자를 너무나 힘들게 했다. 나 또한 6인실 병실에서 동일한 간병생활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시간이었다. 무엇보다도 병원에 있으면 시간이 멈춰버린다는 것이다. 동일한 일상이 나를 무료(無聊)함의 바다로 몰아 넣었다. 나는 무료(無聊)의 바다에서 헤어 나오려 노력했지만, 허우적거릴수록 더욱 깊이 빠져버렸다.

그러던 중 나를 구제해 준 것이 바로 독서였다. 어릴 적 “리더스 다이제스트”를 손에 쥐고 잠들 정도로 잡지를 열심히 구독하였고,

젊은 시절에는 다양한 “소설”이 항상 내 손에 쥐어져 있었다. 청춘 시절, 학교를 다닐 때도 친구를 만날 때에도, 여행을 할 때에도 항상 내 곁에서 든든한 친구가 되어준 책을 다시 찾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주로 건강 관련 책자를 구입해서 읽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건강회복이 나의 최대 주안점이었기 때문이다.

가족회의를 거쳐 우리는 한방 항암치료를 시작하기로 했다. 기존 양방병원을 퇴원하고 00한방병원에서 항암치료를 시작하였다. 다행히 엄마는 췌장암을 초기에 발견하여 수술을 하였고,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고 지속적인 항암치료로 병의 경과가 좋다고 하였다. 한방병원에서도 나는 무료함의 바다에서 헤어나오기 위해 다양한 책을 읽기 시작하였다. 병세가 다소 호전되자 어머니도 내가 책을 읽는 모습을 보시고는 독서를 하고 싶다고 하셨다. 나는 어머니를 위해 서점에서 다양한 책자를 구입하였다. 주로 건강관련 책들을 구입해 드렸다. 나는 건강 관련 책들을 너무 읽다보니, 한 종류의 책자에 편중된 것 같아서 다른 책들을 읽기로 마음먹고, 어머니가 암에 걸리기 전에 애들 때문에 자주 읽었던 과학 관련 책들을 구입해서 읽기로 했다. 쌍둥이가 과학자가 꿈이라 과학책들을 자주 읽고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기 때문에 나오서는 과학책을 읽고서 공부할 수 밖에 없었다. 자녀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되어 버린 것이다.

세월은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을 만큼 빨랐다. 다시 6개월이 지났고 어머니는 건강이 많이 호전(好轉)되어 통근치료하기로 하고 퇴원을 하셨다. 어머니와 나의 긴 투병과 간병 생활동안 우리의 벗

은 언제나 독서였다. 책이 무료한 일상과 반복되는 투병생활을 견딜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고, 독서를 통해 희로애락(喜怒哀樂)을 느끼며 삶의 의욕을 불태운 것이 항암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어머니와 나는 생각한다. 만약 독서없이 병실에서 무료함에 지쳐갔다면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에 악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3년이 벌써 지났다. 지금은 강릉 집에서 지내시며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통근치료를 받으신다. 현재로서는 경과가 양호한 상태이다. 하지만 아직 2년 정도의 고비가 남아있어 언제나 걱정이 앞선다.

미리 알아서 효를 행하지 못하고 어머니가 큰 병에 걸려서야 효의 중요성을 깨달은 나는 불효녀(不孝女)이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부모님과 떨어져 살기 때문에 자주 뵙지를 못하고 있다. 어떻게 투병중이신 엄마와 투병을 힘겹게 도우시는 아버지에게 도움이 되고 효를 행할 수 있을까?

나는 ‘독서(도서) 효도’를 하기로 결심했다. 한 달 간격으로 다양한 책을 부모님께 선물하고 있다. 나는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전화를 드리고, 간혹 화상전화를 하기도 한다. 엄마와 아빠에게 나와 아이들의 모습을 수시로 보여주고 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항상 마음은 곁에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매일 안부를 여쭙고 있다.

아이들의 자라는 모습을 수시로 사진으로 찍어서 전송해 드린다. 지나가다 예쁜 꽃이 보이면 사진을 찍어 “엄마 생각이 나서 보내요.”

라는 문자와 함께 전송해 드린다. 남편이 사업 실패 후 직장 생활을 하지만, 빚이 많아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학원에도 보내지 못하지만, 벌써 초등학교 6학년인 쌍둥이는 각종 대회에서 상을 휩쓸고 있다. 시상식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드리면 “너도 어릴 때 공부 잘해서 상(賞) 많이 받았다.”고 옛날 이야기를 해 주신다. 이런 식으로 이런저런 일상의 애깃거리들을 사진과 안부전화로 알려 드린다.

하지만 내가 보내 드리는 책들이 두 분께 가장 좋은 위안이 되고 있는 것은 부인(否認)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곁에 없는 우리보다 책은 늘 두 분 곁에서 친구가 되어 주기도 하고 자식이 되어 주기도 하며, 때로는 쌍둥이를 대신해서 손녀(孫女)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친정 부모님 때문에, 시부모님께 아이들을 맡긴 불효(不孝)를 만회하기 위해, 지금 시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고 있다. 간병을 위해 남편이 아이들을 데리고 시부모님과 합가(合家)한 이후, 따로 분가(分家)하지 않고 나는 시부모님께 좋은 며느리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친정 부모님께 도서 선물로 행하는 효도를 직접 얼굴을 대면하면서 행하고 있다. 시부모님은 손녀들이 자라는 모습과 가족 간의 화목 속에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계신다고 말씀하신다. 하지만 누구나 나이가 들면 근원적인 외로움과 무상함을 느끼기 마련이다.

‘작은 아씨들’로 유명한 ‘올컷(Louisa May Alcott)’은 “늙었다는

가장 확실한 징후는 고독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나는 이 말에 깊이 공감한다. 나 또한 중년이 되면서 근원적인 고독이 무엇인지 조금씩 인지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물며, 노령(老齡)의 시부모님은 내가 아는 그 이상의 근원적인 고독감에 공격당하고 계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독을 이기는 가장 좋은 길 중에 하나는 언제 어디서나 대화할 수 있는 ‘영혼의 친구’를 만드는 일이다. 책을 곁에 두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교감(交感)할 수 있는 ‘영혼의 벗’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시부모님께도 친정 부모님처럼 책을 선물하기로 결심했다. 어떤 책을 사드리면 좋을까? 남편과 쌍둥이 두 딸과 상의한 결과, 시부모님께도 건강 관련 책을 구입해 드리기로 했다. 두 분도 최근 고령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쌍둥이 두 딸은 여전히 과학책과 ‘밥 매거진(Bop magazine)’이란 잡지에 빠져 있다. 과학자가 되겠다고 발명노트를 쓰고, 상상한 것을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고, 태양전지 실험도 하고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나는 그런 두 딸의 꿈을 돕기 위해 과학책도 함께 읽어 주고, 부모님들을 위해 건강 관련 도서도 구독하고, 도서관에서 취미 관련 책자도 찾아서 생활의 활력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주말에 우리 가족은 도서관으로 자주 나들이 간다. 각종 책들이 우리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도서관에서 좋은 책을 발견하면 나는 선별(選別)해서 메모해 둔다. 그리고 서점에서 책을 구입해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께 선물한다. 책이 부모님들께

최근 가장 좋은 벗이고 자식이기 때문이다.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 모두 나의 책 선물에 너무나 만족해 하신다.

친정 부모님은 책을 읽다보면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지나가 버린다고 자주 이야기 하신다. 하루가 빨리 지나간다는 표현은 너무나 상투적(常套的)인 표현이다. 하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느끼는 그대로 표현한 가장 좋은 표현임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만큼 부모님께서 독서를 통해 위안을 얻으시고 시간을 행복으로 채워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었다.

나의 도서 선물을 통한 ‘아날로그식 효도’는 계속 될 것이다. 디지털 시대에 시대상과 맞지 않는 구식 효도일지 모른다. 스마트폰을 선물하는 것이 최고의 선물일지도 모른다. 나도 부모님께 스마트폰을 선물해 드리려고 여쭙본 일이 있다. 하지만 부모님은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다고 기존의 피쳐 폰(Feature phone)을 고집하셨다. 나는 사용하기 어려운 스마트폰을 억지로 구입해서 선물하는 것보다 부모님 세대에 익숙한 활자(活字) 매체인 책을 선물하는 효도가 더욱 부모님께 맞는 효도선물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나의 책 선물은 계속 될 것이다. 내게는 이것이 가장 좋은 효도라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셀프치유

도혜주 대구 동구 팔공로 (봉무동)

별안간 눈이 떠졌다. 아침인가. 시곗바늘은 새벽 1시를 넘어간다. 다시 눈을 감고 억지 잠을 청한다. 심장이 튀어나올 것처럼 두근거린다. 일어나서 약을 찾는다. 신경안정제. 불면의 밤이면 한 알씩 삼킨다. 이내 나른함이 눈꺼풀을 덮는다. 내일 아침까지 죽은 듯이 잠들 수 있기를.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신경정신과 의사는 의례적인 질문을 한다. 우울증에 어디 특효약이 있었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한 지푸라기인 것을. 다시 약을 제때 챙겨 먹으라는 당부만 듣고 병원을 나온다. 투명한 봉지에 든 작고 흰색의 알약이 햇살에 반짝인다. 자식 키우는 어미의 심장은 유리로 만들어졌다지. 금방이라도 균열이 생겨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2년 전부터 자칫하여 대화 도중 불운한 가정사가 드러날까 봐 대인기피증까지 생겼다. 점차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 라디오에서 들리는 시청자들의 사연이 모두 내가 겪고 있는 아픔처럼 느껴졌다. 지나가는 바람이 툭 건드려도 두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항상 주머니에 손수건을 넣어 다닐 정도였다.

“뭐해? 나와야지. 책은 다 읽었어?”

얼마 전부터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들이 함께 모여 독서토론을 시작했다. 썩 내키진 않았지만 어두운 동굴로만 숨으려던 나를 그들이 무작정 끌어 당겼다.

틱- 틱- 책상 스탠드의 불을 켜다. 창밖은 여전히 새벽이다. 무의식의 손이 흰색 알약을 더듬는다.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은 불안증을 가라앉히기 위함이다. 툭- 데구루루- 떨어지는 손에서 마법의 알약이 떨어진다. 한참을 쳐다보다 물만 마시고 만다. 먹지 않고 얼마까지 버틸 수 있을까. 저녁식사 후 읽다만 책이 눈에 들어온다. 알약 대신 책을 집어 든다. 펼쳐진 책의 얼굴이 말갭다. 행간은 정갈하다. 인쇄체가 눈에 익숙하다. 작가의 속살거림이 귓가에 파고든다. 마치 자장가처럼. 스프르 다시 눈이 감긴다.

‘다 읽어야 하는데....., 그래서 주인공은 어떻게 되는 거지?’

독서토론을 위해 다 함께 모인 날, 같은 책들이 탁자 위에 놓여졌

다. 서로들 얼마만큼 읽었는지 확인에 들어갔다. 반 밖에 못 읽었노라 실토를 했다. 그래도 괜찮다는 위로를 들었다. 책을 읽은 서로의 느낌과 생각들을 쏟아냈다. 누에꼬치에서 비단실을 뽑듯이.

나의 실은 번데기 안에서 얼마나 꼬여 있었는지 그들처럼 쉽게 뽑혀 나오질 못했다. 조금 나올라치면 안에서 당겨진 듯 멈추어 버렸다.

내안의 외로운 아이. 슬픈 여인. 두려움. 엄마의 존재들이 실을 놓아주지 않았다. 잠깐, 멈춰. 더 이상은 발설하지 마. 네 입을 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세상 밖으로 우리를 내몰지 마 제발…….

책속의 인물들이 내 안을 기웃댄다. 굳게 닫힌 마음의 육중한 문을 뼈저덕 열어 놓는다. 두 무릎을 껴안고 한껏 고개 숙인 어느 연약한 존재를 발견한다. 다가가 어깨를 흔든다. 질타와 비웃음 대신 가만히 껴안아 준다. 말없이 등을 토닥인다. 네 탓이 아냐. 네 책임도 아냐. 그냥 너이면 돼. 상처 입은 곳을 어루만져 준다. 성수가 닿기라도 한 듯 끓았던 곳에서 새살이 돌아났다. 이것이 말로만 들던 기적이란 말인가. 말없이 치료가 이루어진 듯 내 안의 작고 가여운 존재가 고개를 들었다. 민둥한 얼굴에 눈과 코와 입이 생겨났다. 표정 없던 기관들에 푸르른 바람이 스며들었다. 이제 마음껏 숨을 쉴 수 있을까. 깊이 들이마시고 내어 쉬는 공기의 싱그러움. 두 눈으로 세상의 빛이 들어왔다. 날날의 색깔들이 형형색색 일어나고 있었다.

“살고 싶어.” 입 밖으로 터져 나온 외마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특! 드디어 질긴 낚싯줄 같은 감정의 선들이 끊어졌다. 그 줄을 잡아당기던 낚선 감정들이 줄줄이 달려 나왔다. 뺨을 타고 흐르던 눈물이 턱선에서 한참 고이다 툭 떨어졌다. 시원했다. 무거웠던 마음이 오히려 가벼워지고 있었다. 감정의 체중감량. 비대해져만 갔던 우울한 감정의 비계들이 한 꺼풀씩 벗겨져 나갔다. 그런 나를 지켜보는 눈들이 많았다. 그저 바라만 보아 주었다. 값싼 동정은 없었다. 나도 그랬어. 내 마음도 똑같았어. 라고 말을 건네는 존재는 따로 있었다. 책 안의 또 다른 나. 주인공과 그 외의 인물들…….

그 날, 차곡차곡 쌓여있던 거대한 감정의 산들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다.

신기하게도 새벽에 눈을 뜨지 않았다. 편안히 잠을 자 본게 얼마만이었던가.

책을 통한 내 마음의 치유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루어진다. 제 3자의 눈에서 나 자신의 내면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 책읽기와 토론이 꼭 막힌 감정들을 끌어내어 준다. 청량한 소화제인 셈이다. 한껏 게워진 위장으로 따뜻한 꿀물까지 넣어준다.

절망만을 향하던 발걸음이 벼랑 끝에서 멈춰 섰다. 부르는 소리에 뒤돌아보았다. 이곳으로 되돌아오라고 손짓을 보내왔다. 한 줄기 빛

을 따라 문을 열었다. 낯선 이들. 책속의 무수한 이야기들을 보았다.
괜찮다며 내 가슴을 다독여 주었다. 이제 마음 편안히 살아보고 싶
다고 고백했다. 언제든지 함께 해주겠다고 다짐 받았다.

|가작

우리 집, 작은 도서관

박복자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답십리동)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 아래 우리 집은 옹기종기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책을 펼쳤다.

학창시절, 수업시간 선생님 몰래 힐끔힐끔 책을 읽던 기억이 머리를 스쳤다.

중학교 때부터였다.

수업시간이 되면 맨 뒷자리에서 조용히 책상 서랍 속에 미리 감춰 놓은 책을 슬며시 꺼냈다.

결국 분필이 날아와 수업종이 울릴 때까지 책을 머리에 이고 별을 썼다.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유난히 책만큼은 자연스레 손이 갔었다.

일찍 결혼을 하고, 딸과 아들을 키우느라 숨 가쁘게 살다보니 저

절로 책과는 멀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얼마 전 막내아들이 독후감대회에서 구청장상을 받아오는 기쁜 일이 생겼다.

날 닮아서 그런지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아들은 초등학교 때 부터 학교를 마치면 도서관에서 하루 한 권씩 책을 읽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 아들의 기특한 모습에 한 권씩 책을 읽으면 용돈 500원을 주곤 했다.

어느 날은 해가 누엣누엣 지고, 밤하늘이 깜깜해질 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는 소동이 벌어졌다.

온 동네를 샅샅이 뒤졌다. 놀이터에도 학교에도 아들이 보이지 않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집 근처 문화회관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아들은 열심히 책을 쌓아놓고 집중해서 책을 읽고 있었다.

조용히 불러내어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도대체 어디서 뭘 하다가 늦게 돌아 온 거야?” 큰 소리로 쏘아붙였다.

“도서관에서 책을 4권 읽으면, 갖고 싶은 지구용사 선가드(로봇장난감)를 살 수 있어요.” 아들은 울먹거리며 말했다.

그때는 걱정이 되어 크게 야단을 쳤지만, 지금 그때 일을 생각해 보니 웃음이 절로 나온다.

상을 받아온 아들 덕분에 우리 집은 때 아닌 독서열풍이 불었다.
큰딸의 방에 들어가 보니 못 보던 책이 즐비해 있었다.
열심히 책을 읽느라 내가 들어온 지도 모르는 눈치였다.
조용히 방을 빠져 나와 시끄러운 음악소리가 나오는 TV를 껐다.

차를 마시기 위해 커피포트에 물을 끓이고 있을 때 휴대폰에서 벨 소리가 울렸다. 아들은 “문화회관에서 책을 읽고 집에 갈게요.”라고 말했다.

집 근처에 있는 문화회관은 아들과 딸이 시험기간에 공부도 하고, 가끔씩 책을 읽기도 하고 빌리는 곳이었다.

집에서 50미터도 채 안 되는 거리였다.

이곳으로 이사를 온지 10년이 훌쩍 지났지만 한 번도 가보지 못했었다.

마음을 먹고 다음날 문화회관을 방문했다.

처음 들어선 입구에는 문화프로그램 안내 포스터가 있었고, 나와 같은 주부들이 계단에서 우르르 몰려 내려오고 있었다.

계단을 걸어 올라서 2층에 있는 자료열람실이라는 팻말을 발견했다.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다.

확 트인 넓은 공간에 약 20개가 넘는 사각테이블이 있고, 몇몇 젊은 학생들과 나와 같은 주부들이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정면에 수십 개가 넘는 책장으로 걸음을 옮겼다.

이렇게나 많은 책이 있을 줄이야? 라는 생각을 하며 이곳저곳을 누볐다.

마음이 떨리고 설레었다.

다시 학창시절로 돌아가는 기분이었다.

그곳에서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른 채 책을 읽고 또 읽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핸드폰에 있는 시계를 보니 오후 5시 5분전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남자직원이 책 열람실 문을 잠그려고 하고 있었다.

아직 책을 다보지 못했는데 얼른 걸어가서 몇 시까지 책을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책을 열람할 수 있는 시간은 5시까지입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었다.

아쉬운 마음이었지만 나는 읽지 못한 책을 빌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평소 같았으면 TV를 켜고 시간을 보냈을 때였다.

하지만 식탁에서 책을 펼쳤다.

책을 읽은 후에는 나도 모르게 느낀 점을 공책에 쓰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식사 후 아들과 딸과 함께 웅기종기 식탁에 모여 각자 보고 싶은 책을 읽기 시작했다.

책을 읽은 후에는 책에 대해 자연스럽게 서로 느낀 점을 나누었다.

그 이후에는 책으로 만들어진 영화를 함께 보러갔다.

물론 책이 더 낫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휴일엔 가족과 다함께 문화회관에 가서 책을 빌려오고, 집에서 책을 읽었다. 휴일에는 가족 모두가 낮잠을 자거나 TV를 시청하는 게 습관이었다.

내가 먼저 습관을 바꾸니 가족들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또한 집의 구조도 변하기 시작했다.

특히 딸의 방에는 새로운 책장이 들어서고 돈을 지출하는 출처가 서점으로 바뀌었다. 점점 책이 늘어났다.

나도 이에 질서라 책장을 사고, 소장하고 싶은 책을 조금씩 구입하였다.

책과 가까워지면서 컴퓨터 TV는 멀어지고, 가족들과 한층 가까워졌다.

매일은 아니지만 1주일에 2~3번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

잔잔한 음악을 틀고, 함께 편안하게 책을 읽었다.

책을 읽은 후 서로 느낀 점에 대해 이야기 할 때는 평소에 알지 못했던 서로의 모습을 재발견하기도 했다.

서로에게 하지 못했던 말도 나누고,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책을 통해서 ‘나’를 뒤돌아보고, ‘우리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미래도 생각하고 설계할 수 있는 ‘우리 집, 작은 도서관’이 탄생되었다.

그 속에는 저 마다의 소중한 책이 그리고 인생이 담겨있다.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의 희로애락이 담겨있다.
책 한 장을 가벼이 넘기지 않듯이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살고
싶다.

|가작

용기에 노크하기

박선미 부산 금정구 옥봉로 (서2동)

똑똑!

“엄마 책 읽어줘!”

방문이 삐뚤 열리면서 좁은 문틈 사이로 딸아이의 조막만한 손과 함께 책 한 권이 슬며시 밀려들어온다. 엎드려서 양증맞은 발을 까딱거리며 오른손으로 책장을 넘기며 왼손으로는 나에게 다른 책을 하나 들이밀고 있는 것이다. 6살 아이의 순수한 책 욕심 덕분에 잔뜩 웅크리고 가계부에 몰두하던 허리도 기지개를 켤 수 있었다. 올해 6살이 된 딸아이의 유별난 책사랑에 신기해 하다가 문득, 나도 어릴 때 책을 좋아했던 시절이 떠올랐다.

삐걱 삐걱 좁은 계단을 오르면, 작디작은 창 사이로 한줌 햇살이 반겨주던 다락방, 일어서면 내 키가 닿는 천장에서 그래도 좋다고 이불을 덮으며 엄마가 사주었던 재미있는 이야기책을 읽는 것이 그

렇게도 행복했다. 한번은 집에서 미싱을 하던 엄마에게 책 판매원이 찾아와 몇 날 며칠을 설득한 끝에 우리 형편보다 비싼 책을 사게 되었다. 나는 새 책을 봐서 기뻐지만, 그날 저녁 아빠가 아시고는 밥상을 뒤집는 사건이 있었다. 책을 보며 기뻐던 마음이 엄마의 눈물을 보며 슬픔으로 바뀌었던 그때, 처음으로 가슴이 아리다는 문구를 마음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되면서 뭔가 책보다는 조금 더 자극적인 것에 관심을 더 가졌다. 중·고등학교 때 특별활동 시간에 동아리도 많았는데 나는 그리 썩 공부를 잘하지도 못했으면서 학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공부 외에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을 가지지 않은 채 그렇게 학창시절을 보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정말 썩 잘하지도 못하면서 말이다. 그러다 대학교에 진학했고 종교동아리 활동을 하긴 했지만 그렇게 적극적이지도 못했다.

주부가 된 후, 6살 된 딸아이가 유치원을 가게 되면서 나에게 대해 생각할 시간이 많아졌다. 그리곤 깨달았다. 나는 책을 읽을 때 가장 편안해 진다는 걸 말이다. 그리고 보니 내 처음 직업도 책과 관련된 것이었다. 책과 아이를 좋아해서 독서토론 지도자로도 활동했던 게 왜 이제야 떠오르는 걸까. 그때는 책을 읽고 질문도 만들며 밤을 새우기도 했었는데.....

그때부터 나는 아이들과 도서관을 다니기 시작했다. 평일엔 동네 도서관부터 시작해서 주말엔 다른 동네 도서관까지 투어를 다니며

그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곤 했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도서관 예절도 배우고 나도 덕분에 여러 책들을 접할 수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보니 내가 제대로 읽고 있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 책 권수만 채우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꼭 도돌이표처럼 자기 계발 서적 위주로만 읽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전업으로 아이들만 키우다 보니 자신감이 조금씩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계속 그런 쪽 책을 택하는 거였다. 그래서 혼자 힘만으론 안되겠다 싶어서 책을 같이 읽고 공유하는 그런 모임이 있는지 찾아보게 되었고, 내가 가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 동네에 독서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세상에나 이런 모임이 있었는데도 난 그 동안 왜 몰랐을까? 그리고 도서관은 이런 모임이 있는데도 왜 적극 홍보를 안 하는거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며 계속 그 동아리를 눈으로 탐색만 했다. 수시로 모임 인터넷 카페를 들락거리며 한번 해볼까 말까를 여러 차례 망설이다 그래, 이번엔 나도 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해보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용기를 내어 독서모임에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띠리리리리리.....

“여보세요? 거기 독서모임이 있다고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 네. 화요일 마다 모임이 있는데요.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참

석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난 후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고 그날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그 다음 주 화요일 10시 30분.

모임중이란 핏말이 내걸린 문을 쳐다보며 나는 다시 입구에서 망설였다. 내 심장은 쿵쿵거리다 못해 쿵떡거리고 있었다. 쿵떡쿵떡..... 이내 심호흡을 한 뒤 문을 두드렸다.

똑똑!

내 두려움과는 달리, 환한 얼굴의 또래 엄마들이 반가운 얼굴로 맞아주었다. 그런데 알갭게도 내가 그 동안 눈으로 얼굴도 익히고 활동도 살펴보던 모임은 아니었다. 실제로 가게 될 때를 대비해 내가 봐왔던 모임은 자녀들이 커서 조금 더 자기 시간이 많은 엄마들의 모임이었고, 내가 가입하게 된 모임은 도서관 사서 분의 추천으로 조금 어린 자녀들을 가진 엄마들의 모임이었다.

설렘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들어간 <글빛누리> 독서 모임은 나에게 정말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다. 직장에 다니는 엄마부터 전업주부까지 다양한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아이들이 어려서 그런지 주로 아이들 책을 소개해주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많았는데 아이들 책을 고르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도 나눌 때가 많아서 그곳에 가면 웃음이 끊이질 않는다.

모임에 가면 갈수록, 내가 왜 진작 이 모임에 빨리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 동안 용기내지 못해 지나버린 시간들이 아깝기 까지 하다.

도서관에서 엄마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마치 학교 다닐 때 동아리 모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만큼 자유롭고 활기차다. 다들 여기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으려고 꺾꺾 달고 살아온 것처럼.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 학창시절의 동아리 모임도 이랬겠지.’ 하면서 상상해본다. 그 때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을 지금 느끼면서.

사실, 난 아직 모임을 많이 하지는 않았다. 시작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의 모임에 있어서는 참석을 많이 할 것이다.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내 생활에 활력이 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10대, 20대의 내가 생각을 안 하고 산 건 아니지만, 그때의 내가 조금 철이 없고 용기가 없었다면, 30대 부터는 철이 든 용기로 오롯이 내 자신으로 살아보고 싶다. 아직도 나는 부족하지만 이렇게 조금씩 용기 내어가며 살아볼 것이다. 올해부터 함께 하게 된 독서 모임과 함께 나는 다시

예전의 책을 좋아하고 끄적거리는 것을 좋아하는 소녀로 돌아가 있다.



책과의 동행

박영숙 경남 김해시 계동로 (대청동)

이태 전까지 나는 도서관 청소부였다. 집안에 작은 풍파가 일어 인생 황혼 녘에 새로 안착한 신시가지에서 살 길을 찾던 차에 도서관 청소 일을 알게 되어 시작하게 되었다. 비단 보료에 금실을 두를 정도로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으나, 내외가 부지런히 살림 꾸렸기에 작게나마 집 한 칸을 마련해 오순도순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새벽안개 걷히듯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고 나니 인생이 허망하고 앞길이 막막했다. 여남은 생애동안 다시 웃을 일이 있을까 싶게 아득했던 세월이었지만 살아가다 보면 뜻밖의 기쁨도 마주하게 되는 것 같다.

당장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시작한 청소 일이지만 남들 보기 창피해서 가족을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새벽 다섯 시면 일어나 급하게 밥 한 술 지어 먹고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도 않은 길을 따라 도서관으로 향했다. 일하던 도서관은 신시가지가 형성되

며 새로 지은 건물이라 크고 깨끗했으나 구석구석 청소하기에는 손이 많이 가는 곳이라 오전 청소를 시작하면 네다섯 시간이 훌쩍 지나 점심때가 되었다. 환갑을 지난 내 또래의 청소부 네 명이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 각자 싸운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면 얼마간 쉴 틈이 생겼다. 다들 관절이 안 좋은 나이라 틈만 나면 박스를 깔 바닥이라도 다리를 펴고 앉았다.

처음 얼마간은 나도 그 틈에 앉아 쉬다가 점차 친분이 생기기 시작하자 서로의 사는 얘기들이 오갔고, 그때까지 속엿 것을 다스리지 못한 나는 슬며시 자리를 뜨곤 했다. 그리고 나면 오후 청소가 시작되기까지 혼자 도서관 이곳저곳을 천천히 돌아보았다. 한날은 2층에서 이어지는 야외 휴게실을 둘러보다가 담배를 피던 젊은이들이 나를 피해 급하게 돌아가며 놓고 간 책 한 권을 주었다. 청소복을 입고 들어서는 나를 위해 단에는 청소하기 편하라고 비껴준 듯 싶었다. 젊은이 중 한 명이 놓고 간 책에는 뒷면에 ‘장유도서관’이라고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젊은이는 찾을 길이 없어서 직접 책을 반납하러 열람실에 갔더니 사서가 고맙다고 상냥하게 인사를 했다. 열람실에는 제법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있었다. 오전에 청소를 할 때까지만 해도 아직 사람들이 찾기 전이라 한산하기만 했던 곳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많은 이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다.

“시간 되시면 앉아서 책 읽고 가세요.”

책을 읽는 사람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서 있는 나를 발견하고는

사서가 책읽기를 권했다.

“옷이 이래서……. 다음에 올게요.”

누가 나무란 것도 아닌데 군데군데 얼룩이 진 파란색 청소복이 마음을 움츠려 들게 만들었다. 열람실을 나오다가 걸음을 멈추고 다시 돌아본 책 읽는 풍경은 딴 세상처럼 평온해 보였다. 삶이 여유로운 자들이 독서의 길을 찾는 것인지, 독서를 통하면 모든 것이 평온해지는 것인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돌아가면서 청소 구역을 맡다가 열람실이 있는 2층이 내 차례가 되는 달이었다. 새벽, 아직 사람들이 오지 않은 텅 빈 열람실을 청소하는데 문득문득 책장에 꽂힌 책의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다. 에세이와 시집이 꽂혀 있는 서가에서는 발길이 오래 머물렀다. ‘무너지지만 말아’라든지, ‘그래도 괜찮아’와 같은 책들은 제목만으로도 따뜻함이 느껴져서 보고만 있어도 따뜻함이 전해졌다. 활자에 대한 욕구와 책을 읽고 싶은 욕망이 그토록 강한 줄은 살면서 미처 몰랐던 것 같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오전 청소를 끝내고 서둘러 점심을 챙겨먹은 다음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열람실에 가 책을 읽었다. 처음에는 마음을 다독이는 수필을 읽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씨실과 날실로 보드라운 덮개가 되어 얼음장 같이 차가웠던 내 마음을 안아주었다. 얼마동안은 책 읽는 이용객들 틈에서 스스로 쉬이지 못하는 이방인이 된 듯 느껴졌으나 그것도 잠시 뿐, 책에 집중하기 시작하자 거짓 말처럼 주변을 잊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의 이목에 신경이 쓰인 것은

나의 짐작일 뿐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이가 들어 글자를 읽을 엄두를 못 냈던 내가 어느 새 한 권, 두 권씩 책을 읽어나갔다. 책장에 꽂혀 있는 책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 읽다가 사서의 도움을 받아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친 후에 비로소 원하는 책을 찾는 방법도 알게 되었다. 매번 점심만 먹고 나면 사라지던 내가 열람실에서 책을 읽는다는 것을 알게 된 동료들이 고상한 취미를 가졌다며 추켜세워 쑥스러울 때도 있었다.

독서에 한 번 취미가 붙기 시작하자 멈출 수가 없었다. 오후 4시에 청소 일일 끝나면 열람실에 앉아 책을 읽었고, 독서 목록도 수필에서 벗어나 소설까지 영역을 넓혀 갔다. 수필과는 달리 소설은 도중에 읽기를 그만두면 다시 읽을 때 앞의 줄거리가 까마득하게 생각나지 않아 곤혹스러울 때가 많았다.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조금 더 읽으려 욕심을 부리다가 열람실 문을 닫을 시간을 넘긴 적도 여러 번이었다. 그러다가 사서의 도움으로 생전 처음으로 도서대출카드라는 것을 만들어 집에서도 책을 읽게 되었다. 덩그러니 내외만 사는 집에 텔레비전 소리가 사라진 것도 그즈음이었다. 남편은 삶의 의욕을 찾은 나를 위해 저녁나절 즐기던 일일연속극을 끊었다. 몇 차례 맞은편에 앉아 책 읽기에 동참했지만 오래 가지는 못했다.

독서 권수가 늘어감에 따라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학창시절에 읽었던 책들과 반가운 재회를 하는 기회가 찾아오고는 했던 것이다. 내가 나고 자란 고향은 함양의 외진 산골이었다. 만주에서 고등교육까지 받았던 어머니는 일제의 정신대 책출을 피해 집안 어른들만

의 논의로 아버지와 혼인을 하셨고, 학업에 대한 미련 때문이었던 지 장녀였던 나의 교육에 열의를 높이셨다. 때문에 나는 동리에서 한글만 겨우 깨친 또래와 달리 상급학교까지 진학하는 혜택까지 누렸다. 하지만 나는 어릴 적에 앓은 홍역 때문에 귀에 염증이 심해져 소리에 둔감해졌고, 급기야 학업을 중단하고 부산의 큰 병원으로 수술을 받으러 갔다.

당시 신문사의 기자로 일하던 작은 아버지 댁에 머물렀는데, 하루는 다락방에 올랐다가 잡다한 책들과 문학 전집을 발견하고는 종일 그곳에서 책을 읽으며 보냈다. 시골집에는 어머니가 만주에서부터 가져온 책 몇 권이 고작이었으니 내 생애 그렇게 많은 책은 처음 본 거나 다름없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면 멍멍한 귀 때문에 실수가 잦았는데, 책을 읽는 데에는 그런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고요한 것이 책 읽기에는 펍 도움이 되었다. 그때 읽었던 ‘빙점’, ‘여자의 일생’, ‘춘희’ 등의 책을 환갑이 지나 다시 만나니 반갑기 그지없었다. 어떤 구절은 수십 년이 지나도 기억나는 것들이 있었고, 재미있게 읽었던 책은 여전히 재미있었다.

이제는 독서에 요령도 붙었다. 책을 읽다가 중간에 일어날 일이 생기면 어김없이 메모지에 읽은 내용을 요약해 두었다. 게으름 피는 기억력 때문에 앞의 내용이 생각이 나지 않아 몇 번을 되풀이 하여 읽으니 며칠 째 진도가 나가지 않아 답답했던 적이 많아서다.

얼마 전에 읽은 소설 ‘빙점’을 예로 들면, [딸 루리코가 사라졌다] 라고 간략하게 적어놓는 식이다. 이렇게 적은 메모들을 모으니 어쉴

프지만 나의 독서기록들이 되었다. 여러 번 끊어 읽은 책은 읽을 당시에는 흐름이 끊겨 아쉬웠으나 독서기록으로 보자면 내용이 세세해져서 좋은 면이 있다.

이제는 말썽부리는 허리 때문에 도서관 청소 일을 그만두었지만, 그래도 참새가 방앗간을 찾듯 이삼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 간다. 친절한 사서는 이따금 읽을 만한 책을 권해주며 도서관 내 작은 독서모임을 추천했다. 젊은이들에게 폐가 될까 차일피일 망설이고만 있다. 이번 참에 나와 같은 노인들을 모아 '실버 독서회'같은 것을 만들면 어떨지 구상 중에 있다. 누구나의 인생도 책 한 권은 될 수 있다고 했던가. 누구보다 치열한 삶을 살았을 실버들의 인생 이야기가 한 권의 책과 어우러진다면 그 또한 멋진 일이라 생각한다.

내 인생의 막바지에 찾아온 불운을 극복하는데 독서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자부할 수 있다. 빛 한 점 들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나는 책과 동행했다. 독서의 시간은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삶을 살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누군가 한없는 고통 속을 헤매고 있는 이에게 말해주고 싶다. 그대, 가만히 책장을 펼쳐 보세요.

나의 친구가 되어준 도마동 새마을금고 자원봉사자들

양수영 대전 서구 계백로 (도마동)

나와 도마동 새마을문고와의 만남은 7년 전 대전으로 이사 올 때 부터 시작되었다. 아들이 자폐2급이라는 판정을 받고 오래 살던 서울에서 아들의 교육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겪었다. 사람들의 오해와 편견은 나를 괴롭혔다. 서울이 오래 살던 곳 같지 않고 타향 같은 생경함이 느껴졌다.

때마침 남편의 직장문제로 아무도 없는 대전에 내려와서 살게 되었다.

정말이지 대전에는 친구라고는 한 명도 없는 곳이었다.

“낮설고 물설다”는 속담이 무슨 말인지를 뺏속으로 느끼는 나날이었다. 아들은 언제나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데 갈 곳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나날이었다.

그 때 만난 곳이 도마동의 새마을문고였다. 책을 좋아하는 나에게

는 물 만난 고기 같은 청량감을 주는 곳이다. 공공도서관을 가려면 버스를 타고 20분을 가야하는 동네이기에, 집 가까운 곳에서 책을 빌린다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었다. 문고에 들어서면 느껴지는 책의 향기와 자원봉사자들의 환한 미소는 나의 마음에 한 줄기의 햇볕 같은 따스함이었다. 우리아들은 고등학생이지만 그림책을 많이 보여주어야 하는데 공공도서관에서는 어린이 도서실에 고등학생은 입장을 시켜주지 않는다. 그러나 작은 마을문고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우리아들을 항상 반갑게 맞아주시고 아들이 좋아하는 그림책을 많이 볼 수 있어서 그림도 많이 그렸다.

아들은 문고에서 본 그림책에서 많은 감성을 선물 받아 대전장애 인미술대회에서 교육감상을 받는 기쁨을 토했다. 그리고 한국장애 인미술협회의 회원이 되어서 경희궁에 전시를 하였다. 아들이 사회의 잉여인간으로 살 것 같은 불안감을 해소하게 해 주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문고의 자원봉사자 친구들은 자신의 일처럼 박수를 치면서 응원해 주어서 나를 많이 기쁘게 해주었다. 세계를 빛내는 화가가 될 거라며 엄지를 척 올려주기도 하였다.

자원봉사자들은 모두 다 가정에도 성실하고 자녀들도 잘 키우면서도 책을 좋아하는 훌륭한 친구들이다. 그래서 나는 그녀들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회장인 은자씨는 종갓집의 만며느리로서 시댁의 대소사와 시골의 일 등 집안일을 많이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회장으로서 대외적인 활동도 열심히 하고 회원들도 열심히 챙기는 모범을 보인다. 경희씨는 사회에도 관심이 많고 같이 사

는 세상에 대한 생각이 깊은 친구이다. 낭랑한 목소리로 항상 우리
아들을 챙기면서 “열심히 그림을 그려.” 응원을 한다.

상금 받으면 점심을 사라고 귀여운 압력을 넣기도 하고 나에게 친
근한 격려를 한다.

미술치료와 봉사에 관심이 많으신 한 언니는 적십자에 같이 가입
하여 봉사를 하자고 하신다. 환갑이 가까운 나이에도 인생의 이모작
을 봉사로 하시려는 언니에게서 나는 진한 감동을 받는다.

책을 많이 읽으시고 작년에 새마을문고 독후감에서 은상을 수상
한 실력자인 한 언니는 올해도 독후감을 써서 기대하시고 계신다.

교회에서 만난 뇌병변 교우를 항상 돌보시면서 장애인의 교육이나
예술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기울이면서 물어보신다. 작은 관심들이
모여서 장애에 대한 이해가 되는 것이므로 나는 참 기쁘다.

작년 동네 경로잔치에서는 문고의 자원봉사자들이 모두 나와서 국
술을 걸고 손을 건어붙이고 음식을 하느라고 구슬땀을 흘리는 모습
을 보였다. 또 올해는 도마동 주민센터의 개축공사로 많은 책을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일이 있었는데 씩씩한 그녀들은 그 많은 책을 잘 정
리하여서 마음으로만 걱정하는 나를 놀라게 하였다. 도시에서는 옆
집의 아줌마와도 말을 한 번 걸지 않는 삭막한 모습일 수 있다. 그러
나 문고의 회원들은 대도시의 한 가운데에서 나에게 말을 걸어주고
힘을 주는 농촌의 두레와 같은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문고에서 책을 빌리고 독후감을 쓰는 과정이 나를 위로하는 과정
이 되었다. 아들을 키우면서 상처받았던 것을 이 과정을 통하여 치

유받았다. 그리고 나는 소녀시절에 꿈꾸던 작가의 꿈을 다시 꾸기 시작하였다. 내가 꿈을 다시 펼치니 갱년기의 우울증이 날아갔다. 올해 봄에는 대전에서 열린 충남지역 샘머리 백일장에서 우수상을 받는 기쁨을 토했다. 여고시절 이후에 처음 받는 상이고 아들의 엄마가 아닌 내 이름 석자가 박힌 상장이 내 인생에 주는 상인 듯 하여 감격스러웠다.

나도 새마을문고에 자원봉사를 하고 싶지만 아들의 하교가 3시라서 시간이 모자라 동참을 못하는 것이 정말 미안하다. 다들 나의 형편을 살피고 나의 마음을 편하게 해 주신다.

가을에는 대통령기 독후감대회에 회원들 모두의 격려를 받으면서 작품을 제출하였다. 나는 이런 독후감대회가 참 좋다. 책을 읽으면서 문장의 숨결까지도 느끼면서 책을 읽게 되니 다 읽고 나서의 감상이 더욱 생생하기 때문이다. 작가가 힘들게 쓴 책을 정성스럽게 읽고 나서야 작가의 노고에 대한 미안함이 감소되기도 한다.

우리 아들과 그림책을 많이 읽고 나서 그림책을 한 권 만들고 싶은 꿈이 생겼다. 아들에게 우리 고장의 문화를 많이 보게 하고 그림을 많이 그리게 하고 싶다.

나의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꿈에도 문고의 친구들은 역시 손뼉을 치면서 감격해 주었다. 문고의 꽃은 단언컨대 자원봉사자들이고 우리 마을을 빛내는 일꾼이다.

내 한숨과 눈물을 글쓰기의 즐거움으로 바꿀 수 있게 해 주고 사랑과 더불어 사는 것만이 인생의 행복임을 알게 해주신 친구들에게

깊은 감사를 보낸다.

나는 꿈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새마을문고의 자원봉사자 친구들의
친절을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다.

|가작

당신을 위한 등대

오신혜 대구 남구 대명남1길 (대명5동)

돌아가신 박완서 선생님은 문학이 마음의 연꽃이라 하셨다. 내게 문학은 마음의 등대였다. 사고로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친척꾸러기 고아가 되어 친척집을 전전했다. 그때 나를 키운 건 8할이 책이었다. 비참하고 괴로울 때면 성냥팔이 소녀가 성냥을 켜듯 책을 펼쳤다.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며 기어이 대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던 것도, 사람을 믿지 못하는 비틀린 마음을 버리고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한 것도 책 덕분이었다. 그래서 아이를 가졌다는 벅찬 소식을 들었을 때도 가장 먼저 책을 떠올렸다.

남편과 나란히 도서관에 앉아 임신과 출산에 관한 온갖 책을 읽었다. 집에 돌아오면 서로 메모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직 태아가 소리를 듣지 못 한다는 걸 알면서도 배에 대고 큰

소리로 동화책을 읽어주기도 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인의 발소리처럼 쿵쿵거리던 태아의 심장이 갑자기 멈춰버렸다. 유도분만으로 죽은 아이를 낳아야 했다. 병원에서는 그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만 했다. 고아가 됐던 그 날처럼, 이유조차 알 수 없는 불행이 또 나를 덮쳤다.

몸조리가 끝나면 마음도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길에서 유도차를 끄는 아기엄마만 봐도 속절없이 마음이 바스라졌다. 제 주먹을 열심히 빨고 있는 아이에게서 눈을 떼 수 없었다. 목적지를 잊은 채, 길거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다.

동료들이 안부를 물을 때도 괴롭기는 마찬가지였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우두커니 서서 땅만 쳐다보다 자리를 피하기 일쑤였다. 결국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두문불출했다. 다시는 세상 속에 섞여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출구를 찾을 수 없는 극한의 고통이었다. 마시지 못하는 술을 들이부어도 소용이 없었다. 방구석에 처박혀 주먹으로 온 몸을 때리며 울부짖었다. 여기저기 멍투성이가 되고나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렇게라도 별을 받아야 할 것 같았다.

점점 망가지는 나를 묵묵히 지켜보던 남편이 어느 날 책 한 권을 건넸다. 아가마중 이라는 태교 책이었다. 나는 그 책을 외우다시피 읽었다. 헐어버린 책 한 귀퉁이에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많고 강한 엄마가 되겠다는 다짐이 적혀있었다.

남편은 아이가 저 먼 곳에 있어도 네가 엄마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만약 아이가 무사히 태어났다면 너는 어떤 엄마가 되려고 했느냐고, 아이가 자라 삶의 고통 속에 몸부림 칠 때면 무엇을 가르쳤겠냐고 물었다.

이겨내라고 가르치는 엄마가 되었을 것이다. 그 때 비로소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라고. 불행도 삶을 완성하는 한 부분이라고 말해주었을 것이다. 내게 의지가 되었던 책을 물려주며, 이런 때일수록 책을 가까이 해야 한다고도 했을 것이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어디에 있든 아이는 내 자식이고, 나는 그 아이의 엄마다.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었다. 아이에게 가르치려던 대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려면 고통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이겨내야 했다. 그런 성찰을 가능하게 하는 건 책 등대뿐이었다.

나는 지역의 인터넷 카페를 통해 나와 비슷한 일을 겪은 엄마들과 독서모임을 만들었다. 나처럼 아파하고 있을 다른 엄마들과 함께 상처를 봉합하고 싶었다. 첫 모임 날, 인사를 나누던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자식 잃은 어미의 심정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모임을 시작한 첫 달에는 유산이 엄마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여러 책을 읽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했다. 죄책감은 스스로를 파괴는 주범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뿌리를 뽑아야 했다.

두 번째 달부터는 마음 속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책을 통해 배웠다. 각자의 사연을 듣고 있을 때면, 칼로 가슴을 에는 것 같아 숨이 턱 막혔다. 만삭에 유산한 어떤 엄마는 아이 얼굴을 보여 달라고 의사에게 매달렸다고 한다. 안 된다는 의사의 가운을 붙잡고 애원했다는 말에 다들 울음을 터트렸다.

각기 다른 태명을 가진 아이들의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다. 우리는 동시에 같은 생각을 했다. 적어도 우리 아이가 혼자서는 아니라는 것이었다. 엄마들이 푹푹 뭉쳐 아픔을 이겨내는 것처럼, 아이들도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는 내 말에 모두들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모임을 계속 이어나갔다. 문학과 비문학을 오가며 읽은 것과 느낀 것에 대해 글도 쓰고 문집도 만들었다. 그러는 동안 점차 몸과 마음에 빛이 스며들었다. 신기한 것은 엄마가 책을 읽게 되자, 다른 가족들도 자연스럽게 책을 접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과정을 통해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다. 엄마에게 책 등대를 나눠주면 가족 전체를 비출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집집마다 불이 켜지다 보면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는 많은 이들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리는 내년부터 짝을 지어 흠어지기로 했다. 각 팀이 새로운 모임을 만들어 더 많은 등대를 세우기 위해서였다.

모두가 꽃길을 원하지만 삶은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원하지 않아도 칠혹 같은 어둠이 찾아온다. 그러한 불행이 왜 당신을 찾아왔는가는 알 수 없다. 이번을 끝으로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 말하기도 어렵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당신의 전용 등대가 되어줄 책

이 있다는 것이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 있다면, 불을 켜는 마음으로 책을 찾으라. 당신의 어둠이 깊을수록, 등대는 더욱 밝게 빛날 것이다.

〈독서모임 ‘등대’에서 만든 문집〉



다시 찾은 독서의 행복

이명자 경기 파주시 파죽읍 우계로 (향양리)

어려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평생의 동반자였던 여러 장르의 많은 책들은 나를 지켜주는 지킴이가 되었고, 나는 책들을 읽으며 꿈도 꾸어보고 슬픔으로 얼룩진 고아의 아픔도 스스로 치유하는 방법도 알아가며 빈 가슴을 채우기도 하였었는데 노년에 뇌출혈로 쓰러지고 반신불수로 기약 없는 삶을 살게 되면서 다시는 빠져 나올 수 없는 깊은 동굴에 갇힌 듯 목숨은 살아있어도 결코 사는 것이 아닌 무력하고 무의미한 삶이 몇 년이나 이어졌다.

뇌졸중 환자에게 가장 경계해야 할 재발의 두려움을 아는 친구나 가까운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제는 책 같은 것은 볼 생각도, 쳐다보지도 말고 재활운동을 열심히 하라’는 충고를 했다. 중환자실에서 입원병동으로 옮겨지고 모든 검사와 더불어서 인지능력 검사결과는 괜찮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왼쪽은 손가락, 발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 일어서지도 못하여 간병인의 도움으로 휠체어를 타는 생활은 절망의 바닥으로 추락한 듯 살아갈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건강하게 거리를 활보하며 열심히 살아오던 생활에서, 갑자기 장애인이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고 두발로 병원 밖을 나갈지도 의문이 들었다.

마비된 손가락, 발가락이 조금 풀리고는 재활운동으로 조금씩 기능을 찾는 일은 인내와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했다. 죽은 뇌세포는 영영 기능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옆에서 무위도식하는 50%의 세포들이 있고, 재활을 해야 대신 역할을 한다는 인체의 상식을 알게 되었다.

힘이 드는 재활치료에 열심히 매달리게 한 원동력은 문학의 힘이였다.

내가 쓰러지고 엉망진창으로 질서가 무너지고 온 식구들은 나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매달렸지만 정작 나 자신은 살고 싶은 생각이 아닌 죽고 싶다는 생각에만 매달렸다.

열심히 살아온 삶에 대한 회의와 무너진 나 자신의 삶이 너무나 허망하고 슬픔의 강물만 가슴에 차고 넘쳤다.

그러나 남편의 한결같은 의지는 변함이 없었고, 자신의 몸이 여위는 것도 아랑곳 하지 않고 나에게 매달렸다. 남편의 정성이 가슴속에 조금씩 스며들고 살아야 한다는 의지가 조금씩 되살아났다. 내가 젊어서부터 써온 詩와 老年에 童詩사랑에 빠져 써온 노트들을 읽고 또 병원 자원봉사자들이 웃음과 함께 병실마다 카트기에 책을 가득

신고 와서 전해주는 책들은 무너져 내렸던 황폐한 영혼의 밭에 꽃씨가 되어 위로와 함께 많은 생각을 하도록 도와주었다. 희망의 빛이 파릇한 새싹처럼 잠깐씩 보여주기도 했다.

살기 위하여 재활에 죽기 살기로 열심히 매달리기 시작했다.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관문은 몸이 조금이라도 자유스럽게 움직이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남들보다 열심히 했고 드디어 휠체어를 벗어나고 지팡이를 짚고 비틀거리는 걸음마를 시작했다. 내 나이 65살의 여름에 병원에서 퇴원을 했다.

연체동물처럼 흐느적거리는 걸음마였지만, 자신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생활하는 위중한 환자들에 비하면 감사한 변화였고 담당교수님, 주치의, 모든 사람들이 ‘기적, 천운, 하늘이 복을 주었다.’는 말로 축복을 해주었다. 그러나 뇌졸중 환자로 비틀거리며 세상을 살기에 적응을 하지 못한 나는 시시때때로 변덕을 부리고 의지가 꺾이는 반복으로 남편을 힘들게 했다.

힘들 때 마다 무너져 내리는 나 자신에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왜 우울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인지 이유를 모르고 있었다. 그것은 내가 평생을 좋아한 책을 읽지 않고 목표나 꿈도 없고 무의미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몸의 상태에 따라 조심스럽게 책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마음속으로 훈풍처럼 행복이 스며들고 있음을 어느 날 깨달았다.

나는 나 자신이 비록 뇌졸중 환자로 지팡이를 짚고 비틀거리며 살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되찾게 되었고, 힘이 없어 서툰 손

가락으로 내가 사랑한 책장의 책들을 읽고, 일기를 쓰고, 글을 쓰려 시도를 멈추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은 축복이라는 생각의 변화는 감사함으로 이어졌고, 가능성을 향하여 도전을 하고 싶은 의욕은 나를 조금씩 잃었던 자신감을 되돌려주고 행복을 운택하고 충만하게 채워주었다. 변함없이 내가 사랑한 문학은 감동을 주고 나에게 행복으로 보답한 것이다.

어려서 부모 없이 누구의 응원이나 위로 없이 넓은 세상에 홀로 버려진 듯한 고독을 책이 채워주었다. 친구들은 부모의 사랑 속에서 교복을 입고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다니는 시절에 푹푹처럼 살아오는 슬픔을 책들을 읽으며 스스로 출구를 찾았던 나는 누구보다 아이들의 좋은 엄마로, 현모양처로, 행복을 채우고 싶어서 나의 부족함을 책속의 지혜를 습득하려 했다. 아이들이 자랄 때는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좋은 책을 책장 가득 채워주고 책을 읽으며 동심에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기원했다. 어려서부터 배우고 싶던 열정을 버리지 못하고 늦은 나이에 문화센터를 다니며 詩와 수필을 배우고는 글을 쓰려고 고뇌하며 시집, 수필집, 동시집, 베스트셀러 소설 책들을 밤을 세워가며 읽었다.

특히, 법정스님의 책들을 몇 번씩 읽고, 이해인 수녀님의 책들, 피천득 선생님의 글, 노자, 장자, 에세이, 채근담과 장영희 교수님의 글, 신문에 실리는 글까지도 스크랩을 해서 읽기도 했다. 많은 베스트셀러 책들은 서점에 가서 사기도 하고, 도서관에 가서 빌려서도 열심히 읽었다. 웃이나 살림, 치장하는 것은 꼭 필요시만 하게 되

만, 책은 언제나 사다 읽으면서 부족한 나의 소질과 지식을 채우려 했고, 그런 글들을 쓰고 싶어 했다. 노년에 질병으로 그토록 사랑할 책들이 몇 년은 무용지물이 되어 책장에서 잠을 자고 있으니 내가 쓰러질 때 충격으로 놀란 남편과 우리 가족들, 특히 나 자신의 트라우마가 조금만 아파도 긴장하게 하고 불안하여, 병원에 가면 ‘책은 읽어도 되는지, 글은 써도 되는지.’ 질문을 하게 된다. 남편도 남들이 나에게 하는 충고대로 책들을 읽으면 혹시라도 조금씩 되찾아가는 건강을 잃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를 하고, 한때는 “책을 어디에 기부하자.”며 내 의사를 묻기도 했지만, 지금은 내가 활력을 찾고 행복해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편함에 매달 배달되는 ‘샘터’와 ‘좋은 생각’이 오면 “당신 보약 왔다.”며 웃으며 준다.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한 건강을 잃는 경험으로 8년의 투병생활을 하면서도 오늘도 가슴 가득 웃음과 행복을 담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준 남편과 아이들은 내가 지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대들보였고 지팡이였다면, 책들은 내 영혼에 행복을 채워주고 나 스스로를 이겨내도록 용기와 의지를 키워준 스승일 것이다.

젊어서부터 바쁜 생활 속에서도 언제나 장소에 맞는 책들을 가방에 챙겨서 조금이라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허용되면 버스나 전철, 병원 대기실에서도 책을 읽었다. 책을 읽는 시간 만큼 마음이 평온하고 행복한 적은 없었다.

아이들의 집에도 많은 책들이 책장 가득한 것을 보며 우리가 보낸 시절보다 더 현명하게 자녀교육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는 성장과정에 맞는 책들을 사촌이나 친구 들끼리도 책을 물려주고 물려받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생각도 든다. 좋은 책이 사람의 심성에 끼치는 영향을 문학의 혜택을 받으며 사는 나는 가장 소중한 유산으로 생각할 때마다 지금 이 순간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너무나 감사하다. 두 번 다시 건강을 잃지 않겠다는 일념과 세월에 밀려 노화 현상이 와도 노년의 질병을 이겨 낼 수 있도록, 아무리 힘든 날도 운동을 쉬지 못하고 또한 한 순간도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지 못한다. 나 때문에 노년의 고생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며 웃음을 잃지 않고 사는 남편과 더불어 문학을 향유하며 자연과 더불어 오늘처럼 살 수 있기를 웃으며 기도한다.

나는 그곳으로 간다.

정은아 대구 동구 안심로 (올하동)

성으로 들어간다. 셀 수 없는 문들이 빼곡히 들어서있다. 오늘은 어떤 문을 통할지 고민한다. 문을 빼꼼히 열고 얼굴을 드밀어본다. 활자들이 때로는 고요하게, 때로는 왁자지껄하게 떠들어댄다. 그윽한 나무 향과 잉크 냄새가 코로 빨려 들어오면 평온이 나를 점령한다. 누렇게 변하고 너털너털해진 문을 살며시 열어보면, 천년 묵은 고목 같은 꼬장꼬장한 영감님이 앉아계신다. 깊이를 헤아리기 힘든 그의 내면에 폭 빠져 들어간다. 세련되고 말끔한 문을 열어보면, 세상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의 배냇짓처럼 신기롭다. 곳곳에 펼쳐진 신선한 발상에 눈도 번쩍 뜨이고, 머릿속이 찌릿하다. 이 문저 문 열었다 닫았다 해도 아무도 나무라지 않는다. 어느 문을 열고 들어갈지는 내가 결정한다. 그 문 안에서 무엇을 찾고, 무얼 얻어 올 것인지는 모두 나에게 달린 일이다.

난 낚는 걸 좋아한다. 평소에 잘 가는 낚시 포인트는 도서관이다. 머리가 손을 따라 좌에서 우로 돌아가며 탐색한다. 눈은 제목을 훑고 지나간다. 제목이 나를 잡아당기면 반사적으로 팔이 그곳을 향한다. 검지로 책의 윗부분을 누르며 당기고, 엄지와 중지가 책 앞뒤를 감싸며 잡아챈다. 하나를 낚았다. 상판대기와 뒷태를 쓱 본다. 이제 속을 볼 차례다. 목차 중에서 가장 끌리는 부분을 잠시 읽어보고, 스마트폰으로 검색도 해본다. 서평이 대체로 좋다. 그럼 이 책은 낙점이다. 때로는 낚인 놈을 놓아줄 때도 있다. 매력적인 겉모습과 호평에 비해 내 마음을 채우기엔 허해 보일 때다. 안에 든 활자들이 살갑게 말을 걸어오지도 않고, 뻗뻗하게 딱 버티고 서서 도통 속이 통하지 않을 때도 있다. 그때는 나도 미련 없이 제자리에 놓아준다. 이런 식으로 나의 낚시는 가끔은 월척을, 가끔은 피라미를 낚는다. 집으로 돌아 갈 땐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선장이다. 두둑해진 가방을 들고 흐뭇하다.

중고서점에 가면, 내 안에 숨어있던 충동 의욕이 꿈틀거린다. 같은 텍스트가 들어가 있어도 가격은 새 책에 비해 저렴하다. 여기 온 녀석들은 전체적으로 누렁거나, 얼룩 몇 개 묻었거나, 굵힌 상처 몇 자국 있거나, 주름 몇 가닥씩 잡혀 있는 게 대부분이다. 그래도 담고 있는 내용은 새 책과 같은 것이니 어느 정도는 눈감아 줄만하다. 여기로 오기 전엔 누군가의 집에서, 가방 속에서, 차에서 지내며 그 누군가의 손길과 눈길을 받았었던 책들이다. 한때는 귀하게 대접받다가, 식어버린 사랑에 울며 처량하게 떠나왔다. 자신을 다시 사랑

해줄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시련의 아픔을 끌어안고 가지런히 꽃혀 있다. 내가 사랑해줄 만한 책을 찾기 위해 도서관에서처럼 눈에 촛불 하나를 켜놓고, 뺏다 꽃기를 반복한다. 다른 이가 읽은 손 때 묻은 책을, 내가 다시 보는 것은 흥미롭다. 먼저 읽은 이의 흔적이 남겨진 책은 더 그러하다. 밑줄과 작은 메모를 발견하기라도 하면 내 눈길은 그곳에 머문다. 내가 생각하는 문장의 밑줄과 그 사람의 밑줄이 일치하고, 책 한 모퉁이에 남겨진 메모의 내용이 내 마음에 와닿으면 가슴이 저릿저릿해진다. 그 책을 읽은 미지의 그 사람과 내가 책을 매개로 이어진다.

대형서점에 가면, 눈은 초점을 잡기 힘들다. 대개 도심에 있어서 자주 오지 못해 더 애뜻하다. 중고서점에서는 구할 수 없는 따끈한 신간을 바로바로 보고 살 수 있어서 좋다. 여기저기 쌓인 책들을 보면 여기서 어떤 보물을 찾아서 가야할지 바쁘다. 이 책 저 책 잡히는 대로 들춰보고, 수많은 작가들과 얼굴 인사를 하고, 수많은 활자들과 겹핥기식으로 대화한다. 그 중 마음에 드는 책을 발견하면, 바닥에 퍼지고 앉아 들여다본다. 아이들에게 책을 사는 돈은 아끼는 게 아니라고 말하곤 했지만, 내 책을 살 때는 집안 경제가 떠오른다. 다시 들여다보고, 또 생각한다. 이 책은 꼭 사야 한다는 마음이 들면 그제야 얇은 지갑 문을 연다. 대형서점 같 여유가 안 될 때는 동네서점과 인터넷 서점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동네서점에는 내가 찾는 책이 없어서 헛걸음 할 경우가 많고, 인터넷 서점은 미리 내용을 훑어보지 못해 사놓고 후회하는 경우도 있다. 동네서점은 책의 양과 중

류에서 대형서점과 인터넷 서점에 밀린다. 도서정가제로 동네서점을 살리려는 노력이, 현실에서는 역부족이다.

사람들이 책을 고르는 기준은 무엇일까?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어떤 이는 유명작가가 쓴 책 위주로 책을 선택하고, 어떤 이는 베스트셀러에 이름을 올린 책을 택한다. 국제적인 문학상을 받은 작가의 책은 별을 달고, 전국 서점에 짝 깔려 순식간에 팔려나가고, 책 선택 순위 1위에 등극한다. 또 어떤 이는 자신이 좋아하고 흥미 있어 하는 분야의 책을 택하여, 파고드는 사람도 있다. 때로는 지인의 추천대로 고르기도 하고, 때로는 필요에 의해 마지못해 선택하기도 한다.

나는 대학시절에 학교 도서관에서 흥미위주의 소설책들을 봤었다. 소설책을 고르면서 책장 사이를 왔다 갔다 거닐면, 책에서 풍기는 푸근한 냄새에 도취되어 서가에 꽂혀진 책들을 바라만 봐도 좋았다. 주부가 되고 아이를 키우다보니 책은 저 먼 기억 속에 묻혀 버렸었다. 여유 있는 사람의 사치로만 생각되었고, 나와는 동떨어진 세계의 유물처럼 느껴졌다.

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 책이 다시 내게로 왔다. 갑작스런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책이 내 마음을 채웠다. 그 때 읽었던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상실수업’, ‘인생수업’은 내 인생에 가장 기억남을 책이라 해도 모자라지 않다. 읽으면서 위로를 받고, 삶을 재설정하도록 도와주었다. 류시화가 엮은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에 나온 작가미상의 ‘슬픔의 돌’이란 시를 보며 다시 내 마음에도 평온이 찾아오길 기다렸다. 주

머니 속에 감춰도 뽀족하고 날카로워 쿡쿡 찌르며 아프던 슬픔의 돌이, 언젠가는 모서리가 둥글어지는 것처럼 나의 슬픔도 무디어지기를 기다렸다. 책을 읽는 동안에는 걱정도 슬픔도 책 안으로 쏟아 부었다. 책이 없었다면, 난 그 시기를 잘 이겨내지 못했을 것이다. 책은 내 인생의 스승이며, 동행이다.

요즘은 나의 책 선택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육아에 몰두하던 몇 년 전엔 주로 시나 단편소설, 에세이, 자기 개발서 위주의 책이었다. 그 책들은 짧지만, 강한 문장들로 내 마음을 다독여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게 도와주었다. 이제는 예전에 도전조차 못했던 종류의 책을 읽으며 보낸다. 인문학, 철학, 고전들을 읽으며 생각의 가치를 뺏어나간다. 책 두께에 위압감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다 읽었을 때 해냈다는 완독의 기쁨과 읽으면서 느껴지는 생각의 깊이감은 책을 놓을 수 없게 한다. 뉴스에서는 여가시간에 책 읽는 사람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한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원래 책 읽던 사람의 책 읽는 양은 늘어났다고 한다. 책과의 동행을 해본 사람은 그 즐거움을 놓지 못하고, 멈출 수도 없다.

책은 읽고 읽어도 무수히 많은 책이 남아 있다. 내가 평생토록 읽어도 전체 책 수에 비하면 아주 미미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책이 인쇄소에서 따뜻한 온기를 품고 나오고 있다. 수많은 책 중에서 선택을 하고, 그 속에 한 줄이라도 내 마음을 두드려 내 생각의 변화를 줄 수 있다면 그 책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 책은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느껴지는 바가 다르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책이라도, 어떤 이에게는 하품만 나오는 잠 오는 책이 되기도 한다. 어떤 때는 갓 나온 따끈따끈한 책이, 어떤 때는 장수한 책이 맛나 보이기도 한다. 책의 선택은 자기 자신에게 달린 것이다.

난 오늘도 성으로 들어간다. 문을 열어 슬쩍 엿보기도 하고, 두드려다 돌아오기도 하고, 활짝 열기도 한다. 내 마음이 허락한 문 안으로 들어가, 활자들이 모인 집합소에 발을 들여놓는다. 그 속을 거닐다 보면 내가 애타게 찾던 보석들을 찾을 수도 있다. 그 보석들은 나의 머리와 가슴에 박혀 반짝거린다. 다시 그 문을 닫고 현실의 나로 돌아와도, 그 보석들은 나를 비추고 인도한다. 내가 원하는 것이 그곳 어딘가에는 있기에, 나는 그곳으로 간다.

책의 첫 장을 두드린 행복

최혜련 대구 동구 아양로 (신암동)

견고한 벽 앞에서 있다. 그 벽을 밀었을 때야 비로소 벽이 아니라 문이었음을 알게 됐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길이 나오고 무채색의 그림자가 나를 따른다. 길을 따라 걸어가면 익숙한 곳에서 추억에 잠기기도 하고 난생 처음 만나는 화려한 장관을 목격하기도 한다. 처음 책을 마주하면 그 이름과 만든 사람이 적혀진 하나의 벽 혹은 벽돌 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문을 열 듯 책장을 열면 새로운 세계를 만난다. 그리고 책의 마지막장은 거울처럼 나를 비춘다. 내가 낮게 읊고 있는 책의 마지막 문장은 과거에 대한 반성임과 동시에 미래에 대한 예언처럼 들린다. 낯선 벽이었던 한 권의 책이 상상 속의 세상으로 열린 문이 되고, 무수한 타인들에게서 나를 발견하는 거울이 된다.

그동안 많은 책들을 만났다. 어떤 책들은 책장의 한 구석에서 먼지를 덮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책들은 구절들이 마음속에 겹겹이

쌓여있기도 하다. 책들은 각각 다른 인상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한 권의 책이 소중한 친구와의 인연을 만든 적이 있다. 그리고 친구와의 만남에서 여러 권의 책들을 마음에 새겨둘 수 있었다. 그때 새겨둔 결을 어루만지는 것처럼 그 당시에 도서관에서 만난 친구와 책들을 기억할 때 내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오른다.

학창 시절 ‘권장 도서’를 읽고 독후감을 쓰는 착실한 학생이었지만 주부가 되고나서는 한 권의 책을 정독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부족했다. 임신 소식을 알았을 때 기쁨과 동시에 과연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태교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다. 하지만 하루 일과를 마치고 늦은 밤이 됐을 때 배를 어루만지며 뱃속의 아기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쉽게 흘러간 하루에 너는 첫 숨을 쉬고 몸을 만들고 마음을 키우고 있겠지. 너는 첫 도전들을 하나씩 하고 있겠구나. 나는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친구들의 태교를 떠올려봤다. 피아노를 연주한 친구, 요가와 발레를 했던 친구, 그리고 꽃꽂이를 배웠던 친구가 있었다. 하지만 모두 나와 어울리지 않았다. 내가 가장 좋아했던 책을 읽기로 마음먹었다.

집안에 들여놓은 책장에는 몇 권의 요리책과 잡지가 있었다. 결혼 전에 읽던 책들은 모두 친정에 있어서 가져오기도 어려웠다. 오랜만에 도서관에 가기로 결심했다. 결혼 전까지 도서관은 나와 인연이 깊은 곳이기도 하다. 대학 때는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해서 서가의 책 제목을 익숙하게 외우게 되었다. 대출 및 반납 카운터에서 일하다보니 학생들이 선호하는 책들도 알 수 있었다. 영어공부나 자격

증시험을 준비할 때도 도서관을 이용했었다. 공부를 마치면 자료실에 들러서 신간도서를 대출해서 가기도 했는데 공부를 핑계로 끝까지 읽지 못하고 반납하던 일이 많았다. 도서관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오래된 친구를 떠올리듯 자원봉사를 하거나 열람실의 자리를 잡던 내 자신이 생각났다.

도서관은 조용했다. 사람들은 서로 약속을 한 것처럼 최소한의 소음만으로 지나가거나 책장을 넘겼다. 평일 낮인데도 자료실에서 책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잠시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도서관의 책장을 가득 메운 책들은 한 권을 꺼내 읽기 전까지는 쌓여있는 벽돌처럼 무심하게 보인다. 그간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은 탓인지 신간의 제목이나 저자들의 이름이 낯설었다. 한 두 권의 책을 집었다가 맞은편의 어린이 자료실을 발견했다. 혼자 도서관에 방문했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뱃속의 아이와 함께 온 것이기에 아이를 위한 책을 읽고 싶었다.

도서관은 친구네 집처럼 익숙하게 방문했었지만 어린이 자료실은 처음이었다. 화사한 꽃그림이 그려진 문고리를 잡았을 때 ‘어린이도 아닌 내가 들어가도 될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다. 파스텔 톤의 예쁜 책장에는 알록달록한 책들이 꽂혀있었다. 출판사별 동화집, 전래동화, 위인전기, 동시집, 그림책 그리고 자연도감들이 있었다. 위인전 중에는 최근에 활동을 하는 스포츠 스타의 이름이 있어서 신기하기도 했다. 무슨 책을 고를까, 생각하며 손끝으로 책을 만지작거렸다. 마치 아이가 된 기분이었다. 동화책 코너에서 반가운 책을 만났

다. ‘마법의 정원.’ 어린 시절 봤던 애니메이션과 같은 제목이었다. 책을 골라들고 키 낮은 책상에 몸을 웅크리고 책장을 열었다. 몇 장을 읽었지만 주인공 ‘메리’가 등장하지 않아서 의아했다. 잠시 책을 펼쳐두고 화장실에 갔다. 읽은 부분까지 기억하려고 같은 구절을 두 번 읽었다. ‘그 철망 한 자락이 마치 책의 한 페이지처럼 땅바닥에 젖혀져 있었다.’ 마치 철망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이 들었는데 나의 단조롭고 순조로운 일상에도 한편의 책이 기쁜 만남을 예고해 줄지는 몰랐다.

화장실에 다녀와서 남편과 통화를 하고 다시 자료실로 들어왔을 때 내 자리에 있었던 책이 없어졌다. 책상 위를 두리번거리다가 뒤쪽 자리에 읽고 있던 ‘마법의 정원’을 발견했다. 책상 위에는 켜진 노트북과 여러 권의 동화책, 그리고 노트와 펜이 어지럽게 펼쳐있었다. 자리를 비운 상태라서 책상 위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책을 가져가야 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마침 자리 주인이 왔다. 사서의 타이핑 소리만이 들리는 조용한 자료실에서 우리는 서로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바라봤다. 나의 눈빛은 ‘왜 내가 보고 있던 책을?’ 이라는 메시지가 담겨있었고 그녀는 ‘왜 내 자리에?’라고 묻는 듯 했다. 어색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나는 껄스름하게 소곤소곤 말했다.

“제가 보던 책이에요.”

“빈자리에 펼쳐져있어서 가져와 읽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녀는 예의바르게 책을 나에게 전했고 나는 목례를 하며 책을 받아와 다시 읽었다. 내가 알던 ‘마법의 정원’은 메리가 병든 소년 콜린

을 위해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는 내용이었는데 완전히 다른 내용이
었다. 그리고 나보다 뒤쪽에 앉은 그녀가 이 책을 급하게 읽어야 할
이유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집중이 되지 않았다. 나는 자판기에서
캔커피를 뽑아 책과 함께 그녀에게 전했다. 그녀는 책에 집중하
다가 나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잠깐 나가자고 했다.

그녀와 나는 맞은편의 휴게실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나는 들고
있던 책을 건넸고 그녀는 음료수 두 잔을 뽑아왔다. 주고받으며 잠
시 분주해졌다.

“저는 다 봤어요. 읽으시려고 하셨죠?”

“아까는 죄송했어요. 펼쳐놓고 가신 줄 알았어요. 책 재미있죠?”

“제가 생각한 책은 아니었어요. 너무 어릴 때 읽어서 그런가? 주인공
공 메리가 콜린을 위해 정원을 가꾸는 이야기로 알았는데.”

“그건 ‘비밀의 정원’이에요. 저도 그 책 참 좋아했는데. 어릴 때 텔
레비전에서 만화영화로 하기도 했잖아요.”

나의 맞장구로 좁은 벤치에서 예상치 못한 긴 대화가 이어졌다. 우
리는 삼십 분이 넘도록 만화와 동화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나와 같
은 또래였고 동화작가 지망생이었다. 나는 임신 중이라 태교를 위해
왔다고 말하면서 배를 어루만졌다. 약간 부끄러웠지만 그녀와 나 사
이에 문이 열린 것처럼 반가웠다. 그녀는 동화에 대해서 해박했다.
나에게 좋은 동화작품들을 추천해 주었고 나는 차례로 책들을 읽어
나갔다. 황선미, 유은실의 창작동화와 앤서니 브라운, 데이비드 위
즈너, 이수지, 백희나의 그림책들도 그녀의 추천이었다. 도서관에

서 책을 읽고 집에 와서 간단한 집안일을 하면서 읽었던 내용을 읊으며 뱃속 아기와 태담을 나눴다. 그녀를 알게 되고 동화책을 읽으며 하루가 풍요로워졌다. 내가 노크하듯 책의 세계에 문을 두드렸고 아이는 아주 가끔 태동으로 나의 책 이야기에 응답하는 것 같았다.

만삭에 임박했을 때부터 도서관에 가지 못했다. 그녀에게 인사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우리는 어린이 자료실에서 나란히 앉아 두 달 동안이나 책을 보고 가끔 휴게실에서 수도도 떨어는데 휴대폰 번호를 교환하지 못했다. 집에 가기 전에 그녀가 동화목록을 적어준 메모지들이 가방 안에 흩어져있었다. 메모지를 하나 둘 모았다. 단정한 글씨체로 ‘꼭 읽어보세요.’라고 시작하는 메모들. 언젠가 우연이라도 그녀를 만나면 그녀가 쓴 책을 꼭 읽어보겠다고 말하고 싶었다.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의 책장을 마련했다. 아직 눈도 못 마주치는 아이에게 책장을 사고 책을 꽂아주는 것은 지나치게 이른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로부터 추천받았던 책을 꽂아주었다. 아이가 언제 글을 떼고 이 책들을 읽을지 모를 일이었지만 책장을 보고 있는 나의 마음은 뿌듯했다. 책장 앞에서 아이를 안고 소곤 소곤 동화책 이야기를 해줬다. 아이가 태담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동화책을 통해서 아이와 나, 둘만의 추억을 공유하는 것 같았다. 아이가 잠들면 그녀가 떠올랐다. 언젠가 동화를 왜 쓰냐는 나의 질문이 대화의 어색한 틈을 만들고 있을 때,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누구나 되돌아가고 싶은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바빠서 가는 길을 잊고 살 때가 있어요. 그때 한 권의 동화가 그

길로 향하는 첫 번째 문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행복한 길잡이가 되고 싶어요. 그 길 위에서 독자랑 아이처럼 노는 것도 재미있고요.”

동화는 어린이들이 읽는 쉬운 책이라고 생각했기에 유년시절과 함께 동화책들도 쉽게 잊혀졌다. 하지만 나는 우연히 동화를 다시 만났을 때 동화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세월의 벽 뒤로 밀어 넣어 둔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는 문이 열렸다. 나에게서는 즐거웠던 유년을 떠올려주고 동시에 아이에게는 행복한 유년시절을 가꿔줄 동화를 다시 만나 기쁘다.

드높은 응모열기와 높아져가는 작품수준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책읽기

지구상에는 수많은 종이 살고 있으나 인간만이 체계적인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여 체득한 지식이나 지혜를 다음 세대로 전승한다. 그 한가운데 책이 있고, 도서관이 있다. 미디어 기술의 발달로 책은 이제 여러 형태로 그 모습을 달리하고 있으나 종이책은 여전히 인간이 발명한 가장 오래된 걸작품 중 하나이다.

책을 소장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를 대출해주던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 책과 도서관을 매개로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변신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영남일보와 달서구가 주최하는 ‘책사랑 주부수필 공모’는 독서동아리 활동, 책사랑 행사 및 독서관련 행사 체험, 도서관 자원봉사 체험, 가정독서활동과 관련하여 이 땅의 주부들이 우리 사회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음을 실제로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업이자 도서관 변신의 신호탄이기도 하다.

새로운 일을 도모할 때 3T를 감안한다. Theme(주제), Target(대상), 그리고 Timing(시기)를 말한다.

편의성, 오락성, 접근성 등을 겸비한 디지털 미디어가 급속하게 세력을 확장할수록 우리는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데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을 것이며, 이웃 간에는 보이지 않는 무관심의 장벽이 그 키를 높여갈 것이다. 이러한 우려로 종이책의 중요성이 더 크게 강조되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으고 있다. 도서관 활동은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학부모, 가족과 가족 사이에 소통을 촉진하고 있으며, 거기에는 학교와 가정, 우리 사회의 큰 축으로 활동하고 있는 학모인 주부들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어 이 사업은 앞으로도 크게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를 거듭하면서 전국 곳곳으로부터의 응모 열기가 높고, 작품의 수준 또한 많이 향상되어 가고 있다. 예심을 거쳐 60편이 선자들의 손에 전달되었다.

전국 주부를 대상으로 한 것은 가정과 학교, 사회를 이어주는 데 있어서 주부들의 건강하고 역동적인 생각과 활동이 한 시대를 아우르는 나라 전체의 기운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 도서관과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많은 주부들이 자녀와 가족들의 독서활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읽으면서 그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독서활동의 내공과 몸에 밴 책사랑 정신이 잘 드러난 작품들이 많

았다. 공모전 취지에 충실한 작품을 뽑느냐, 문학적 완성도가 높은 작품을 뽑느냐는 여전히 선자들을 고심하게 하였다. 일단 양자를 다 아우르는 작품에 가산점을 주기로 하였다. 다양한 독서활동 사례에서 책과 관련한 의미화와 독서활동을 통한 자기 발견의 주제를 구현하려고 노력한 글을 눈여겨보았다.

박희(서울)님의 「이미 위대했던 유산!」을 대상 작품으로 뽑는다.

빛쟁이들의 눈을 피해 야반도주를 택할 정도의 궁색한 형편에서도 아버지는 다락방 서재를 책으로 가득 채웠다. 많은 역경을 잘 버티어 온 것은 학생시절 읽었던 그 책들 속의 희망구절을 찾아내었기 때문이다. 다락방에 켜켜이 쌓아두었던 책들이 딸에게 깊은 성찰을 안겨준 크나큰 유산이었음을 후일 깨닫게 된다. 걸림이 없을 정도의 탄탄한 문장과 표현, 그리고 문학적 역량이 돋보이는 글이다.

박남숙(대구 수성구)님의 「내일을 위한 시간」을 금상 작품으로 뽑는다.

고령 대가야 왕릉전시관에 들어서면서 먼저 살다간 이들이 남긴 흔적을 보면서 삶을 생각해본다. 도서관 강좌 중 ‘나를 찾는 책쓰기’에서 ‘나는 할 수 없다’의 무덤을 나와 따뜻하게 세상 품는 지혜를 배운다. “인생은 한 권의 책이며 책 속에 길은 ‘왜’라는 질문을 품은 사람에게 보인다.” ‘질문은 곧 책과 책을 연결하는 열쇠’라는 깨들음에 이르기까지의 읽기와 쓰기라는 합일의 과정을 거치면서 인생이라는 책을 써나간다는 작가의 문장력을 높이 산다.

이현희(대구 달서구)님의 「나의 가장 행복했던 시간」을 금상 작품

으로 뽑는다.

날날의 활자를 읽는 것은 눈이지만 책 속의 그 깊은 가난한 마음을 풍요롭게 가꾸어준다. 일상이 되어버린 책 읽는 그 시간이야말로 자신과의 소통은 물론 가족 간에도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경건한, 소중한 시간이란 깨달음을 보여준다. 간결하고 명징한 표현으로 글을 끌고 가는 힘이 좋다.

수상자들에게는 축하를, 아쉽지만 낙선한 분들에게는 다음을 기약하는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책을 통해 우리 사회가 풍요롭고 건강하기를 기원한다.

- 심사위원 일동 -

심사위원 : 장호병, 허창욱, 김수영

마음 공핍한 요즘...희망의 구절로 '행복한 울림'

내달 15일 시상식...수상작 수필집 제작

영남일보와 담서구청이 주최한 '제7회 담서책사랑 전국주부수필공모전'에서 박희씨의 '이미 위대했던 유산'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금상은 박남숙씨의 '내일을 위한 시간'과 이현희씨의 '나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 공동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주부들에게 독서운동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 가정에서 책 읽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열린 이번 공모전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210편의 작품이 전국에서 응모됐다. 대구뿐 아니라 서울, 부산, 대전 등에서도 원고를 보내왔다.

올해 출품작은 책과 독서에 대해 자신이 직접 겪은 이야기를 담아내 심사위원들의 공감을 이끌어낸 것이 주를 이뤘다. 가정에서의 독서, 동네 도서관에서의 독서, 독서 동아리 활동 등의 예를 들어 독서활동이 갖는 의미를 찾고, 이같은 활동을 통해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느낀 것에 대해 쓴 작품들이 많았다. 장호병 심사위원장은 "독서활동의 내공과 몸엔 백 책에 대한 사랑이 잘 드러난 작품이 많았다"며 "다양한 독서활동 사례에서 책과



대상 박희씨

금상 박남숙씨

금상 이현희씨

관련한 의미화와 독서활동을 통한 자기 발견의 주제를 구현하려고 노력한 글을 눈여겨봤다"고 평했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15일 오후 2시 대구시 동구 신천동 영남일보 지하 2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수상작은 담서구청 홈페이지와 담서 소식지에 게재된다. 이후 수필집으로 제작돼 도서관에 비치된다. [최미애기자 miaechol2@yeongnam.com](mailto:miaechol2@yeongnam.com)

■ **입상자 명단** △대상=박희 △금상=박남숙 이현희 △은상=민경희 소정혜 윤승선 △동상= 문은주 박성희 엄수인 이경화 황채민 △각종-강성화 권미옥 김양희 도혜주 박복자 박선미 박영숙 양수영 오신혜 이명자 정은아 최혜련

대상 박희씨

"한 자루 촛불의 힘을 이 시대에 전하고 싶다"

유난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요즘, 올해 대학생이 된 아들이 촛불을 들고 밖으로 나가면서 불었다. 분노와 절망과 아픔을 달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책이 있는지... 그런 책 속의 구절이 있는지 하고, 나는 아들의 헛헛한 뒷모습을 배웅하고 돌아와 서재를 둘러보았다. 문득 톨스토이의 '인생독본'이라는 책이 눈에 띄었다. 삶의 의문과 성장에 대해서 톨스토이와 유명한 사상가들의 지혜를 담은 이 책 속엔 그런 구절이 있다. "한 자루 촛불이

다른 초에다 불을 당기고, 나중에는 수천 지루의 촛불을 켜듯, 한 사람의 마음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불을 질러 나중에는 천 사람의 마음을 태우게 하는 것이다."

그 촛불의 힘이 다행이고, 그 수천, 수십만 명의 마음이 합해져서 결국 큰 강물을 이루고 새로운 역사를 알리낼 것임을, 나에게, 아들에게, 이 시대에게 전하고 싶다. 아울러 보잘것없는 작은 글이 큰 상을 받게 되었다니 한량없이 기쁘고, 개인적으로 큰 힘이 되는 오늘이다.

책 주부들의 아름다운 노래 사랑이야기

제7회 달서 책사랑 전국주부수필공모전 수상작 모음집

발행일 | 2016년 12월 15일

주 최 | 대구광역시달서구청, 영남일보

주 관 | 영남일보
